나초 두아토와 스페인 국립무용단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Artistic Director : Nacho Duato

예술의전당

AMERICAN EXPRESS®

www.americanexpress.co.kr



문 의:1588-8100

가입문의:080-707-8100

동양카드(주)

operating under license from American Express

Seoul
Arts
Center
Presents

나초 두아토와 스페인 국립무용단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Artistic Director : Nacho Duato



2002. 6. 21(금) 7:30 pm
22(토) 3:30, 7:30 pm
23(일) 4:00 pm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주최 | 예술의전당 SBS

협찬 | XCANVAS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Artistic Director: Nacho Duato

MINISTERIO DE EDUCACION, CULTURA Y DEPORTE



국내 최고의 와인 문화 공간
르 클럽 드 뱅

와인 매니아의 파라다이스
르 클럽 드 뱅에서만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최고의 와인 문화 공간, 르 클럽 드 뱅

르 클럽 드 뱅은 와인에 관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국내 수입되는 모든 와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무료 와인 테이스팅, 와인 교육 세미나 등 와인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이 만나는 작은 살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곳입니다.

와인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와인 지식이 풍부한 스텝들로부터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와인에 관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티나 각종 모임에 필요한 와인 글라스 대여, 나만의 라벨과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와인서적, 와인 액세서리, 와인 셀러 등 와인과 관련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와인 멤버쉽
르 클럽 드 뱅 멤버쉽

- 다른 매장과 비교하여 10~30% 할인판매
- 와인초보자를 위해 10년 경력 와인전문상담사가 친절한 안내 서비스
- 미팅, 파티 등 고객의 모임에 장소 대여
- 받는 분 대문까지 배달해 드리는 맞춤선물 서비스
-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와인스쿨과 와인세미나 개최
-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무료시음코너 등
- 생일, 결혼기념일에 특별 선물 증정
- 마일리지 적립고객께 푸짐한 사은품 증정
- 와인 파티 및 이벤트에 우선 초대 특혜

르 클럽 드 뱅 멤버에 가입하시려면
와인나라 닷컴 사이트 www.winenara.com

Le club de Vin
코엑스점에서는 세미나 및 각종 모임을 위한 장소를 무료로 대여해 드립니다.

Freixenet

MOUTON CADET®

· 르 클럽 드 뱅 종로 매장 : (02)732-0102 · 르 클럽 드 뱅 코엑스 : (02)558-9880
· 홈페이지 : http://www.winenara.com



2002 FIFA 한일 월드컵으로 세계인의 관심이 우리나라로 모인 가운데 예술의전당은 세계 정상의 안무가인 나초 두아토와 그가 이끄는 스페인 국립무용단을 초청하였습니다.

스페인 국립무용단은 스페인의 문화적 자존심을 지켜온 오랜 전통의 무용단입니다. 국내 팬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1990년 유럽 무용계의 주목을 받아온 젊은 거장 나초 두아토를 예술감독으로 영입하면서 금세기 최고의 무용단으로 우뚝 선 단체입니다. 예술감독인 나초 두아토는 현존하는 최고의 안무가 지리 킬리안의 뒤를 잇는 차세대 최고의 안무가입니다.

그동안 예술의전당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예술가와 작품들을 소개하여 국내 관객들이 고급예술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나초 두아토가 이끄는 스페인 국립무용단 역시 관객 여러분께 기대 이상의 예술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무대에 해외의 대규모 현대무용단을 초청하여 소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만, 최상의 작품으로 최고의 극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이번 공연을 주저없이 선택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서울공연에서 선보일 세 작품은 모두 나초 두아토가 안무한 작품입니다. 특히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 민요에 기초한 〈살라파르타〉는 한국 관객만을 위해 선정한 두아토의 대표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연이 우리 무용 애호가를 비롯한 국내 관객 여러분들에게 현대발레의 진수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월드컵 축구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서도 오늘 이 공연을 찾아주신 관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준 높은 무대로 한국을 찾은 스페인 국립무용단과 이번 무대를 위해 애써주신 SBS, LG전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김 순 규

As the world focuses on the celebration of the 2002 FIFA Korea-Japan World Cup here in Korea, the Seoul Art Center has proudly invited the world renowned artist Nacho Duato and the Spanish Compania Nacional de Danza to be part of this world festivity.

The Compania Nacional de Danza is a time-honored ballet troupe that has guarded the pride of Spain's rich culture. Though the Korean audience may not be too familiar with its fame, the troupe has become one of the best in its field in this century with the new leadership in 1990 of Nacho Duato, acclaimed as one of the best in the European dance circle. The artistic director Duato follows the step of Jiri Kylian as the summit in the ballet world.

The Seoul Art Center has been exerting to continuously provide for the Korean audience the opportunity to enjoy the best of the artistic world by presenting global artists and works. I take pride in expressing with confidence that the Compania Nacional de Danza led by Nacho Duato joins the league of the world's best that will go beyond the audience's expectations. By all means, it is not easy to invite such a large-scale dance troupe to the Korean stage. However, here at SAC, we have without hesitation taken this particular decision with the determination in maintaining the tradition of being the best theater in the nation that present world-class artists and stages.

Nacho Duato himself has choreographed the 3 works that will be presented on the Seoul stage. Especially, "Txalaparta," which is based on traditional music from the Basque region in the northern part of Spain, is Duato's representative work especially selected for the Korean audience. I sincerely hope that tonight's stage will provide the setting for Koreans and dance aficionados to enjoy the summit of modern dance.

I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thanks for joining us tonight amid this football fever of the World Cup. I als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SBS and LG Electronics for their unsparing support in making this world-class stage possible. Thank you very much.

Mr. Kim Soon Kyu
President of the Seoul Art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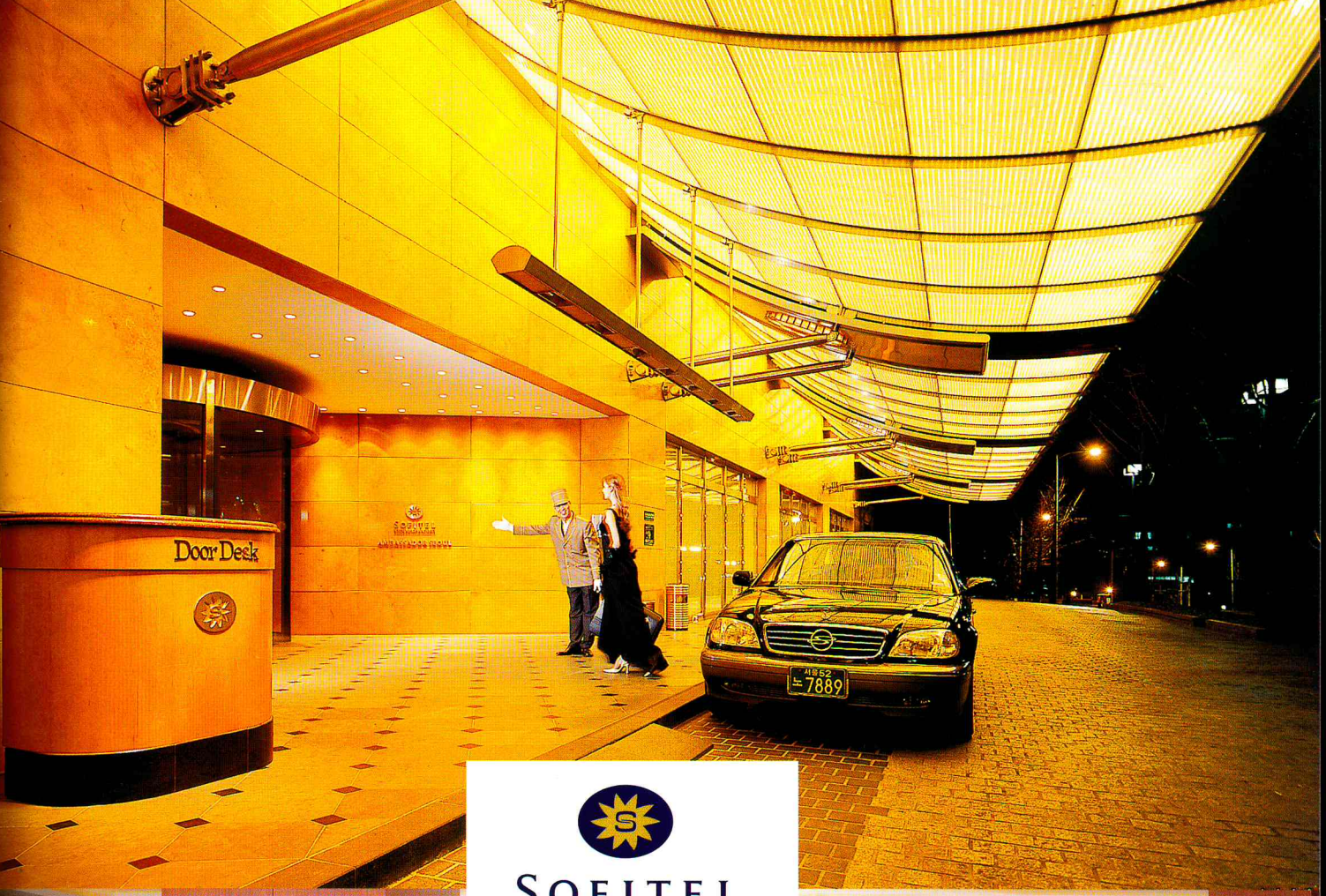
단원들과 해외 공연을 하는 것은 언제나 큰 즐거움입니다. 이번 한국 공연은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위대한 나라에 스페인의 문화를 소개하는 문화 대사로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광으로, 대한민국의 관객들에게 최선을 다한 훌륭한 공연으로 이에 보답할 것이며, 아무쪼록 두 나라가 춤이라는 범세계적인 마법같은 언어로 더욱 밀착되기를 바랍니다.

스페인국립무용단 예술감독
나초 두아토

It is always a pleasure to present my company abroad. This visit to Seoul means to be ambassadors of the Spanish culture in front of a great country which has never been visited before by our ensemble. It means a great honour to us all and we hope to offer our best to the very wonderful people of Korea so that our two countries will become closer by this miracle which is the universal language of dance.

Nacho Duato
Artistic Director Compania Nacional de Danza





SOFITEL
ACCOR HOTELS & RESORTS

AMBASSADOR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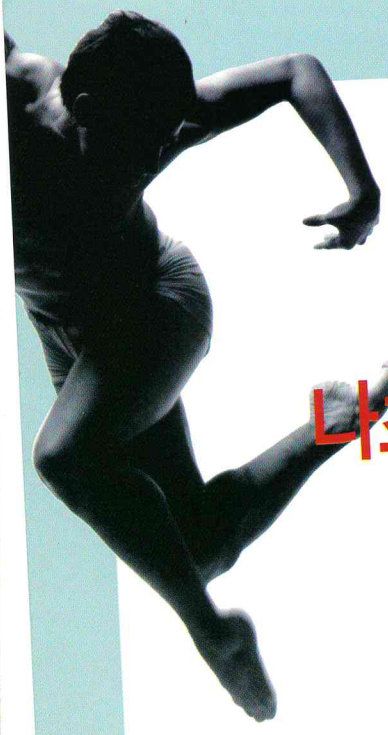


그 아름다운 시작

46년 만에 새로운 외관으로 모습을 달리한 소피텔 앰배서더.
그 새로운 모습의 놀라움이 채 가시기전, 아시아와 남유럽의 맛과 멋을 전해드릴
새 레스토랑 '카페 드 셰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문의 예약 : (02) 2270-3131 www.ambatel.com www.sofitel.com

SOFITEL AMBASSADOR SEOUL



Seoul Arts Center Presents

나초 두아토와 스페인 국립무용단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Artistic Director : Nacho Duato

Ⅰ. 살라파르타

안무 : 나초 두아토
음악 : 케파 준케라 이 오레카
세트 : 에파르 알 샬라비
의상 : 나초 두아토
2001. 5. 18 초연

휴식

Ⅱ. 아칸젤로 코렐리

안무 : 나초 두아토
무대 : 나초 두아토
음악 : 아칸젤로 코렐리 · 알렉산드로 스칼라티
의상 : 나초 두아토
2000. 5. 31 초연

Ⅲ. 너무도 사랑하는 그대

안무 : 나초 두아토
음악 : 스페인 15, 16세기 고전 음악
세트 : 나초 두아토
의상 : 나초 두아토 · 이즈마렐 아츠나르
1996. 4. 11 초연

XCANVAS

MINISTERIO DE EDUCACIÓN, CULTURA Y DEPORTE
INSTITUTO NACIONAL DE LAS ARTES ESCÉNICAS Y DE LA MÚSICA

"tour organized by DLB SPECTACLES / Didier Le Besque - Paris"

★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핸드폰, 호출기, 알람 시계 등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부 : 28분 – 휴식 – 2부 : 54분

Compañía Na

Seoul Arts Center Presents

나초 두아토와 스페인 국립무용단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Artistic Director : Nacho Duato

Ⅰ. Txalaparta

Choreography : Nacho Duato
Music : Kepa Junkera y Oreka TX
Sets : Jaffar Al Chalabi
Costumes : Nacho Duato
Worldpremiere by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at Teatro Real de Madrid, 18th, May, 2001

Intermission

Ⅱ. Arcangelo

Choreography : Nacho Duato
Sets : Nacho Duato
Music : Arcangelo Corelli (Concerti Grossi Op. 6) and Alessandro Scarlatti (Il Primo Omicidio)
Costumes : Nacho Duato (in collaboration with Ismael Aznar)
Worldpremiere by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at Teatro Real de Madrid, 31st, May, 2000

Ⅲ. Por Vos Muero

Choreography : Nacho Duato
Music : Old Spanish Music-XV and XVI centuries
Sets : Nacho Duato
Costumes : Nacho Duato and Ismael Aznar
Worldpremiere by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at Teatro de Madrid, 11th, April,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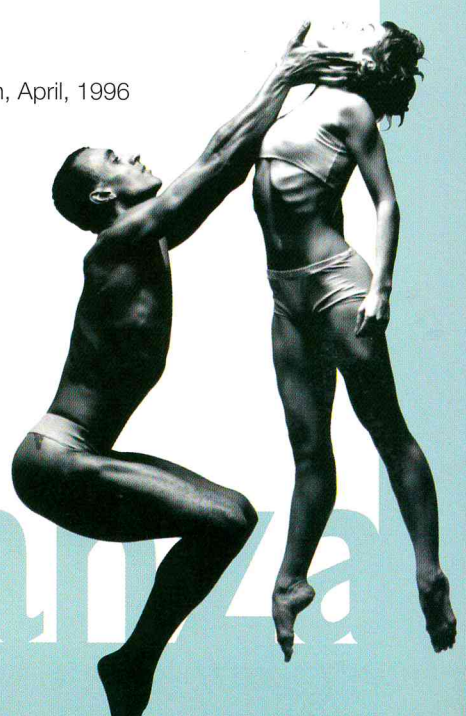
XCANVAS

MINISTERIO DE EDUCACIÓN, CULTURA Y DEPORTE — INSTITUTO NACIONAL DE LAS ARTES ESCÉNICAS Y DE LA MÚSICA

"tour organized by DLB SPECTACLES / Didier Le Besque - Paris"

★ Before the concert begins please switch off your cell phones and electronic devices.★

1st Act : 28minutes - Intermission - 2nd Act : 54minutes



ional de Danza

스페인의 영혼과 서구적 구성미

나초 두아토

사람마다 평가가 다르겠지만 현재 유럽의 40대 발레 안무가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꼽아보라면 개인적으로는 주저없이 나초 두아토(Nacho Duato, 1957-)를 이야기하겠다. 유럽 현대발레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인물로 꼽기에 전혀 손색없을 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꽤 마음 끌리는 안무 스타일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유럽 현대발레의 계통수를 그려보겠다면 상당히 많은 이름을 떠올리고 정리해야 하리라. 연전에 고인이 된 비르기트 쿨베리(1908-1999)를 비롯해 롤랑 프티(1924-)나 모리스 베자르(1927-), 한스 반 마넨(1932-) 같은 원로급들에 이어 60대의 아메데오 아모디오(1940-, 로마 오페라 발레), 존 뉴마이어(1942-, 함부르크 발레), 50대에 속하는 마츠 에크(1945-, 스웨덴), 이리 킬리안(1947-, 네덜란드 단스 테아터, NDT), 윌리엄 포사이드(1949-, 프랑크푸르트 발레), 그리고 비교적 젊은층으로는 국립발레단과의 공동작업으로 국내에도 이름이 알려진 장-크리스토프 마이요(1960-, 몬테-카를로 발레) 등 기라성 같은 무용작가들이 저마다의 철학과 비전, 다양한 재능, 그리고 갖가지 스타일로 현대발레의 성곽을 견고하게 쌓아올리며 풍요롭게 장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두아토는 서유럽과는 어딘가 다른 스페인의 특이한 정서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오랜 발레 전통으로부터 구축된 서유럽적 세련미를 십분 발휘하는 점, 그리고 베자르나 킬리안처럼 낯선 나라들의 음악이나 민속을 자기화하는 능력 등이 그의 안무가로서의 남다른 재능과 결코 작지 않은 그릇임을 실감하게 한다.

두아토는 상당히 늦은 나이인 18세가 되어서야 런던의 램버트 스쿨에서 본격적인 무용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브뤼셀에 있던 베자르의 무드라 학교를 거쳐 뉴욕 앨빈 에일리 어메리칸 댄스 센터에서 수학한 뒤 1980년 스톡홀름의 쿨베리 발레에 입단했다. 그러다 1년 후 킬리안의 눈에 띄어 NDT로 옮기게 되는데 그는 NDT에서 무용수로서는 물론이고 안무 재능을 인정받아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다. 1987년에는 뛰어난 무용수에게 주는 VSCD 골든 댄스상을 받기도 했지만, 역시 그의 더 큰 재능은 안무쪽에 있었다. 첫 작품인 〈닫혀진 정원〉이 콜른 국제안무워크숍에서 1등상을 수상하면서 순식간에 이 젊은 안무가의 존재는 국제적 반열에 올랐다.

1988년 그는 한스 반 마넨과 킬리안에 이어 NDT의 세 번째 상주(레지던트) 안무가가 됐으며, 이후 안무 의뢰가 급증하면서 그의 작품들은 NDT 외에도 쿨베리 발레, 캐나다 그랑 발레, 도이체 오퍼 발레, 어메리컨 발레 씨어터(ABT), 핀란드 오페라 발레 등 세계 유수 발레단의 레퍼토리로 편입되기 시작했다.

1990년 스페인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으로 부임한 그는 자신의 작품 외에도 킬리안, 마츠 에크, 윌리엄 포사이드, 오하드 나하린, 라몬 오예르, 한스 반 마넨, 파트릭 데 바나, 니콜로 폰테 등 이 시대를 이끌고 있는 현대발레 및 현대무용 창작가들을 객원 안무자로 끌어들임으로써 스페인 현대발레의 시야를 넓히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과거 클래식 발레에 집착하던 스페인 무용계의 분위기에 맞서 새로운 발레를 개척하려 끊임없이 노력했던 전임자들의 역할이 튼튼한 주춧돌이 되어 주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무용계가 창작무용의 출현에 꽤 오랫동안 거부반응을 보였고 지금도 일각에서는 그런 것처럼, 스페인 역시 80년대 한동안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현대발레 및 현대무용의 뿌리내림에 대해 스페인의 평론가들은 모리스 베자르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분석한다.

나로서는 위에서 소개한 수많은 유럽의 현대발레 안무가들 가운데서도 베자르-킬리안-두아토 라인을 중시하는 편이다. '라인'이라고 해서 그들 사이에 특별히 인위적인 계보가 형성돼 있다는 뜻은 아니다. 현대발레 발전사의 관점에서 볼 때 클래식에 대한 충분한 존중과 동시에 그것으로부터의 자유, 소재와 주제에 있어서 보편성과 고유성의 통합, 자기문화와 타문화를 융합시키려는 적극적이고 포용적인 자세 등 여러 측면에서 볼 때 가장 굵은 줄기를 형성했으며 주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된다는 말이다. 훌륭한 안무가들이 대개 그런 것처럼, 두아토 역시 음악성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감수성과 분석력을 지니고 있다. 그가 만든 작품은 수십 편에 이르는데, 마치 킬리안이 그렇듯, 특별히 뒤떨어지는 작품이 눈에 띄지 않는다. 아직 젊다면 젊은 그가 현대발레의 명편들을 빚어가고 있는 배경에는 매우 안정된 역량과 깊은 저력이 자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종호(무용평론가)-예술의전당 월보 2002년 4월호에서 발췌



Born in Valencia, Spain. Nacho Duato started professional ballet training with the Rambert School in London at eighteen, expanding studies at Maurice Bejart's Mudra School in Brussels and completing his dance education at the Alvin Ailey American Dance Centre in New York. In 1980 Duato signed his first professional contract with the Cullberg Ballet in Stockholm and a year later Jiri Kylian brought him to the Nederlands Dans Theater in Holland, where he was quickly incorporated into the company and the repertoire. For his achievements as a dancer he received the VSCD Gouden Dansprijs (Golden Dance Award) for the year 1987.

Duato's natural talent had him soon look beyond the limitations of a dancer and turned towards choreography. His first attempt in 1983 turned into a major succes: Jardi Tancat set to the Spanish/Catalonian music by compatriot Maria del Mar Bonet won him the first prize at the International Choreographic Workshop in Cologne. In 1988 Nacho Duato was named Resident Choreographer for Nederlands Dans Theater - next to Hans van Manen and Jiri Kylian.

With the growing demand of international companies requesting his work for their repertoire, Duato had to take a decisive step towards his future career. His ballets form the part of the repertoire of companies like Cullberg Ballet, Nederlands Dans Theater, Les Grands Ballets Canadiens, Deutsche Oper Ballet, Australian Ballet, Stuttgart Ballet, Ballet Gulbenkian, Finnish Opera Ballet, San Francisco Ballet, Royal Ballet and the American Ballet Theatre. In 1995 he received the grade of Chevalier dans l'Ordre des Arts et des Lettres which is annually given by the French Embassy in Spain.

In 1998 the Spanish Government rewarded him the Golden Medal for the Merit in the Fine Arts. At the Stuttgart Opera he won the Benois de la Danse, one of the most prestigious international awards for choreography, presented by the International Dance Association for Multiplicity, Forms of Silence and Emptiness in April of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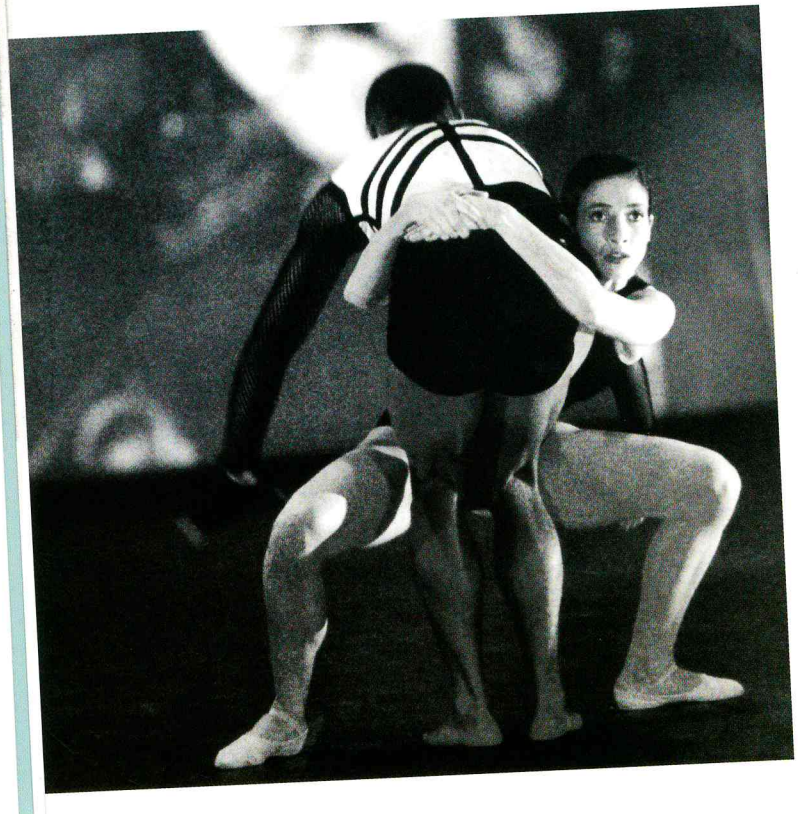
Since June, 1990, invited by the Instituto Nacional de las Artes Escénicas y de la Música of the Spanish Ministry of Culture, Nacho Duato is the Artistic Director of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긴 여정, 그리고 마침내 도달한 현대발레의 정수

스페인 국립무용단

스페인 무용계에는 양대 국립단체가 있다. 하나는 국립발레단(Ballet Nacional Español)이고 다른 하나는 국립무용단(Compañía Nacional de Danza)이다. 그런데 스페인에서 발레를 하는 곳은 국립발레단(BNE)이 아니고 국립무용단(CND)이다.

스페인의 국립무용단과 국립발레단은 기구조직상 몇 차례 변화를 거쳤다. 스페인국립무용단은 1979년 국립 클래식발레단(Ballet Nacional de España Clásico)이라는 이름으로 빅토르 우야테(Victor Ullate)의 지도하에 창단되었다. 이 단체가 바로 오늘날 스페인 국립무용단의 전신이다. 1983년 스페인 문화부는 국립발레단(BNE)과 국립 클래식발레단(Ballet Nacional Clásico)을 하나로 통합하고 예술감독에 마리아 데 아빌라(María de Ávila)를 임명했다. 마리아 데 아빌라는 조지 발란신이나 앤터니 튜더같은 네오클래식 혹은 좀 더 현대적인 창작발레를 수용하기 시작했다.



1986년 9월 마리아 데 아빌라가 떠나면서 통합단체는 다시 로 나뉘었다. 클래식발레단에게는 분리독립이 일대 혁신의 가 되었다. 명칭이 국립가극장 발레단(Ballet del Teatro Li Nacional)으로 바뀌면서 1987년 러시아 볼쇼이 발레단 출신 야 플리세츠카야(Maya Mikhailovna Plisetskaya)를 새 예술 으로 맞이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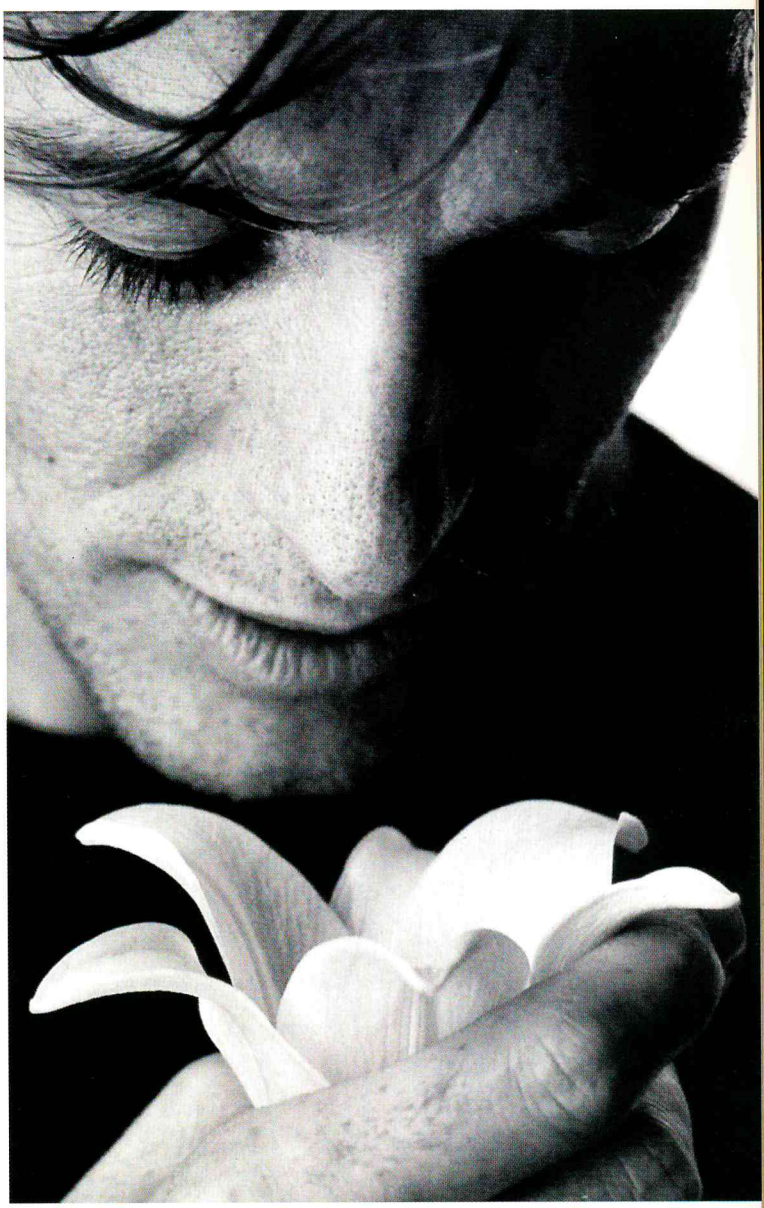
이 불세출의 발레리나가 이끌던 3-4년 동안 이 단체는 엄 질적 향상을 이룩했다. 무용수들의 테크닉은 물론 표현력, 력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어냈는데, 발레 애호가들은 플리세츠카야가 스페인 국립무용단의 수 볼쇼이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까지 극찬하고 있다. 미하일 이 안나 파블로바를 위해 만든 〈빈사의 백조〉를 파블로바보 잘 추었다고 평가받는 유일한 댄서가 바로 그녀다. 〈빈사의 를 출 때 그녀의 몸은 인간의 요소가 고스란히 빠져나가 정 어가는 백조가 된다.

그러나 80년대 말부터 급격히 변하기 시작한 러시아와 볼 의 상황을 지켜보던 마야는 조국으로 돌아갔고, 그 자리는 나 아토가 물려받았다. 1990년 나초 두아토의 영입은 스페인 국 용단의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일이었다.

나초 두아토의 예술적 의지와 역량을 통해 독특한 개성의 적 무용단으로 변모한 스페인 국립무용단은 기존 레퍼토리 정과 새로운 창작, 세계적인 작품들의 과감한 수용, 스페인 신과 문화로부터 재창조되는 무궁무진한 레퍼토리를 소 며, 세계 무용계의 흐름을 주도하는 정상의 무용단으로 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종호(무용

예술의전당 월보 2002년 3월호에



The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was founded in 1979 under the name of Ballet Nacional de España Clásico, and its first Director was Victor Ullate. In 1983 the Direction of the Ballets Nacionales - Español y Clásico - was put under the charge of María de Ávila, who systemized the internal work of the Ballet and placed special emphasis on opening its doors to choreographies, such as those of George Balanchine and Anthony Tudor.

María de Ávila put Ray Barra, a former North American dancer and choreographer living in Spain, in charge of a number of choreographies, and later offered him the post of Assistant Director, which he held until 1990.

In December 1987, Maya Plisetskaya, the extraordinary Russian dancer, was appointed the ballet's Artistic Director. As of 1990, the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under the artistic direction of Nacho Duato, has started on a new path, consolidating as a stable company, occupying a well-earned place in the international dancing panorama.

The appointment of renowned dancer and choreographer Nacho Duato as Artistic Director of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in June, 1990 has meant an innovative change in the company's history. It is Duato's firm intention to transform the Compañía into a ballet with a personality of its own in which, without neglecting the classical precepts, a more contemporary style is adopted. To achieve this, he will include new choreographic work in the Company's repertoire, created specially for it, together with other works of proven quality, recognized worldwide. Also, Nacho Duato contributes to the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with his work as a choreographer, praised by critics all over the world and awarded prizes by the experts.

Duato is concerned with finding the balance between choreography, ballet and a way of life. As he sees it, the richness of Spanish culture and folklore constitute an inexhaustible source for his works.

Throughout these years the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has built up a solid reputation, giving a great number of performances both in Spain and in foreign countries, like France, Austria, Germany, Switzerland, Cuba, Taiwan, Israel, Russia, Mexico, Italy, Venezuela, Japan, Argentina, Puerto Rico, the United Kingdom, Canada, U.S., Peru, Colombia, Holland, Belgium, Finland, Greece, Brazil and Hong Kong.

발레와 현대춤의 결혼

발레와 현대 춤이 만나면서 그들이 가진 장점을 결합한 또 하나의 장르, 즉 '현대발레'가 무용의 주류를 이끄는 현재에 나초 두아토의 스페인 국립무용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무용단이 되었다. 이런 공연이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무용이 국내의 어느 예술 분야보다도 세계적인 조류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춤이 주목받고 있다. 언제부터인지 서울 공연장에서 웬만큼 이름난 무용공연은 예매하지 않으면 티켓을 구하기 힘들게 되었다. 몽탈보, 필립 드쿠플레, 마기 마랭, 피나 바우시, 지리 킬리안 등 세계적인 안무가들의 작품이 국내에서 공연될 때는 어디서 소문을 듣고 왔는지 극장의 로비가 몰려든 사람들의 열기로 가득 찬다. 종전에는 무용공연의 관객이 대부분 무용계 사람들이었는데, 어느새 국내의 예술계 전반에 걸친 얼굴들이 보인다. 연극, 음악, 미술은 말할 것도 없고 문학, 패션, 대중매체 등 타 예술 분야의 전문인들까지도 이제는 춤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 최근에 와서 춤이야말로 무대예술, 즉 공연예술의 중심점이 되어가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것일까?

세계적으로 보면 2차 대전 이후 무대예술의 중심은 연극이었다. 그런데 80년대 와서 연극을 대신해서 무용이 그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일본의 무용평론가 미우라 마사시는 그 이유를 세계적으로 정치의 시대,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이라고 한다. 입에 침을 튀겨가며 정치를 논하던 시대에 무대예술의 중심은 연극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은 '관념'이 아닌 '신체'로 옮겨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무용이 이 시대 공연예술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은 태어나 자라고, 또 늙어 죽어가는 인간의 삶을 춤추는 이나, 보는 이나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신체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느끼게 해주기 때문인 것이다.

어떤 분야건 마찬가지겠지만 무용의 역사 또한 남다르게 뛰어난 무용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현대무용은 이사도라 덩컨 이후 수많은 혁신적인 무용가들에 의해서 그 개념을 바꿔왔는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서는 더 이상 현대무용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부정하던, 소위 발레와 혼합한 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발레 또한 현대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정통적인 레퍼토리만을 고집할 수가 없었는데, 1970년대를 전후해 글렌 테틀리, 안토니 튜더 그리고 존 크랑코를 거쳐 존 노이마이어, 마츠 에크, 지리 킬리안, 마이클 클락, 윌리엄 포사이드 등 발레계의 남자 무용수들에 의해 놀라운 반란이 일어났다. 이들은 서로 강한 영향력을 주고 받으면서 그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발레에 움직임의 아름다움을 목적으로 한 발란쉰이 추구했던 '추상적인 美'는 물론 그라함적인 움직임의 의미를 첨가함으로써 '역사적인 美'를 탄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무용 조류의 한가운데서 나초 두아토가 태어났다. 현대발레계의 후예인 나초 두아토는 영국 런던의 램버트 무용학교에서 발레를 배우고 베자르가 설립한 학교인 벨기에의 무드라 스쿨을 거쳐 미국의 앨빈 에일리 어메리컨 댄스 센터에서 무용수의 수업을 쌓았다. 그후 스웨덴의 마츠 에크가 이끄는 쿨베리 발레단의 무용수를 거쳐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NDT)의 지리 킬리안과 함께 일하게 된다. 나초 두아토의 안무가로서의 재능은 지리 킬리안에 의해서 발굴된다. 킬리안은 무용수였던 자신이 존 크랑코에 의해서 안무가의 재능을 인정받았던 것처럼 두아토에게 안무



의 기회를 제공한다. 두아토의 안무는 곧 NDT뿐만 아니라 유럽의 다른 무용단의 고정 레퍼토리가 될 만큼 환영받게 되는데, 이것은 비단 두아토의 예술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무용수들이 그와 함께 작업하는 것을 즐거운 일로 생각하게 하는, 진지하면서도 유쾌한 두아토의 인간적인 매력에 기인하기도 한다.

1990년 나초 두아토는 조국 스페인 국립무용단의 안무가로 위촉되었다. 그는 그동안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배우고 경험한 그의 예술적인 재능을 조국에 바치기로 결심한다. 큰 키에다 잘 뻗은 골격을 갖추고 온화한 표정 가운데 빛나는 두 눈을 가진 정열적인 자국 태생을 지도자로 맞은 스페인 국립무용단은 물을 만난 생선처럼 거리낌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동시대 현대 춤의 첨단에 서게 되었다.

두아토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안무가는 킬리안이다. 킬리안을 존경받는 안무가라고 한다면, 두아토는 사랑받는 안무가라고 말할 수 있다. 두아토도 킬리안처럼 그의 작품에서 움직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주 음악적이다. 그러나 두아토는 킬리안에 비하면 훨씬 낙천적이고 따뜻하다. 나초 두아토의 무용수들은 킬리안의 작품에서처럼 낯설지 않고 갈비뼈가 더 휘어진 형상을 한다. 무용수들의 몸은 길게 회전하는 조각들처럼 아름답다.

이 둘의 차이는 킬리안과 두아토가 가진 조국의 배경이 체코와 스페인이라는 것을 알면 당연하게 생각될지도 모르겠다. 두아토가 안무한 스페인의 민속 무용에 맞춘 정교하고 세련된 무용수들의 움직임을 보는 관객은 같이 무대로 나아가 춤을 추고 싶은 즐거운 신명을 느끼게 된다.

발레와 현대 춤이 만나면서 그들이 가진 장점을 결합한 또 하나의 장르, 즉 '현대발레'가 무용의 주류를 이끄는 현재에 나초 두아토의 스페인 국립무용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무용단이 되었다. 이런 공연이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무용이 국내의 어느 예술 분야보다 세계적인 조류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나초 두아토와 스페인 국립무용단의 공연을 기다리면서, 언젠가 이 땅에도 세계무대에서 선두를 달리던 한국 출신의 무용가가 돌아올 날을 기대해본다. 그가 조국에서 전 생애에 걸친 예술적 경험을 작품으로 담아내고 그 작품으로 전 세계를 순회하는 날이 오기를...

글 : 남정호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스페인 국립무용단과 내한한 모던발레의 대표주자

나초 두아토

"스페인 국립무용단은 스스로의 독창성에서 에너지를 취하는 젊은 단체이다. 우리 무용단은 해마다 유명한 안무가와 4~5작품을 만들고 있고, 물론 나 역시 안무에 참가한다. 우리는 관객에게 양질의 작품을 선보이기를 원하며, 이것은 남다른 열정과 노력, 그리고 훈련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부분이다."

1988년에 한국에서 공연한 〈닫혀진 정원〉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그리고 이번 한국 공연에 대한 감회는?

〈닫혀진 정원〉은 나의 첫 안무이다. 1983년에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NDT)에서 무용수로 활동했었을 때 워크숍에서 만든 작품이다. 현재까지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발레단에서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다. 이 작품은 매우 신선하고, 또 매우 정직하다. 아직도 나는 이 작품이 다른 많은 작품 중에서 매우 특별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 문명에 항상 관심이 많았다. 한국의 관객과는 물리적으로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심적으로 매우 가까움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 물론 이번 내한 공연에는 한국 관객들에게 우리만의 춤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 최근 작품들을 가지고 온다. 나라, 문화, 언어가 다른 여러 사람들을 정신적인 면에서 한 곳으로 묶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나는 항상 춤이라는 범세계적인 언어가 가지는 힘에 대해 믿고 있다. 마치 마법 같지 않은가?

스페인 국립무용단의 특징과 장점을 이야기한다면?

스페인 국립무용단은 스스로의 독창성에서 에너지를 취하는 젊은 단체이다. 우리 무용단은 해마다 유명한 안무가와 4~5작품을 만들고 있고, 물론 나 역시 안무에 참가한다. 우리는 관객에게 양질의 작품을 선보이기를 원하며, 이것은 남다른 열정과 노력, 그리고 훈련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 단체의 모든 무용수들은 나와 같이 작업하길 원했으며, 그들의 춤을 보면 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정말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1990년 이래, 이 무용단의 예술감독으로 있는데, 미래의 스페인 국립무용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당면 목표는 마드리드에 무용단을 위한 전문 극장을 짓는 것이다. 물론, 전 세계에 우리의 이름과 작품을 널리 알리는 것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이야기가 듣고 싶다. 어떻게 지리 킬리안에게 안무가로 인정받게 되었는가?

안무가란 동작으로 춤이라는 언어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안무가에게는 선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킬리안은 안무라는 영역에서 나 자신도 모르는 나를 발견해 주었다. 그는 매우 관대하고, 나에게 너무나 큰 기회를 주었다. 그에게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를 너무나도 존경한다.

당신의 작품에 영향을 준 사람은?

안무를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지리 킬리안이 나의 영감의 근원이었다. 그와는 9년을 같이 작업했다. 지리 킬리안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강한 영향을 받은 사람은 없다. 스페인 국립무용단을 맡기 위해 1990년에 마드리드에 온 이후로는 줄곧 나만의 스타일을 발전시켜왔다. 현재는 창작자로서 매우 독립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뛰어난 안무가로 인정받고 있지만, 예전에는 훌륭한 무용수였다고 알고 있다. 아직도 무대에서 춤추고 싶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아주 가끔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무대에 서고 있다. 가끔은 전막 공연이 아닌 일부분만 춤을 출 때도 있다. 그러나 사실 예술감독의 일과 안무가의 일이 너무 많아서 정기적으로 춤을 출 여력은 없다.

이번에 한국에서 선보일 작품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싶다. 〈너무도 사랑하는 그대〉는 중세의 음악과 시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들었다. 시가 춤으로 표현될 때 어떤 특별한 효과가 있는가?

시를 너무 많이 해석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어떤 장면에는 시 자체가 매우 중요한 힘을 가지기 때문에, 말이 나올 때는 무대에서의 동작을 줄이는 것을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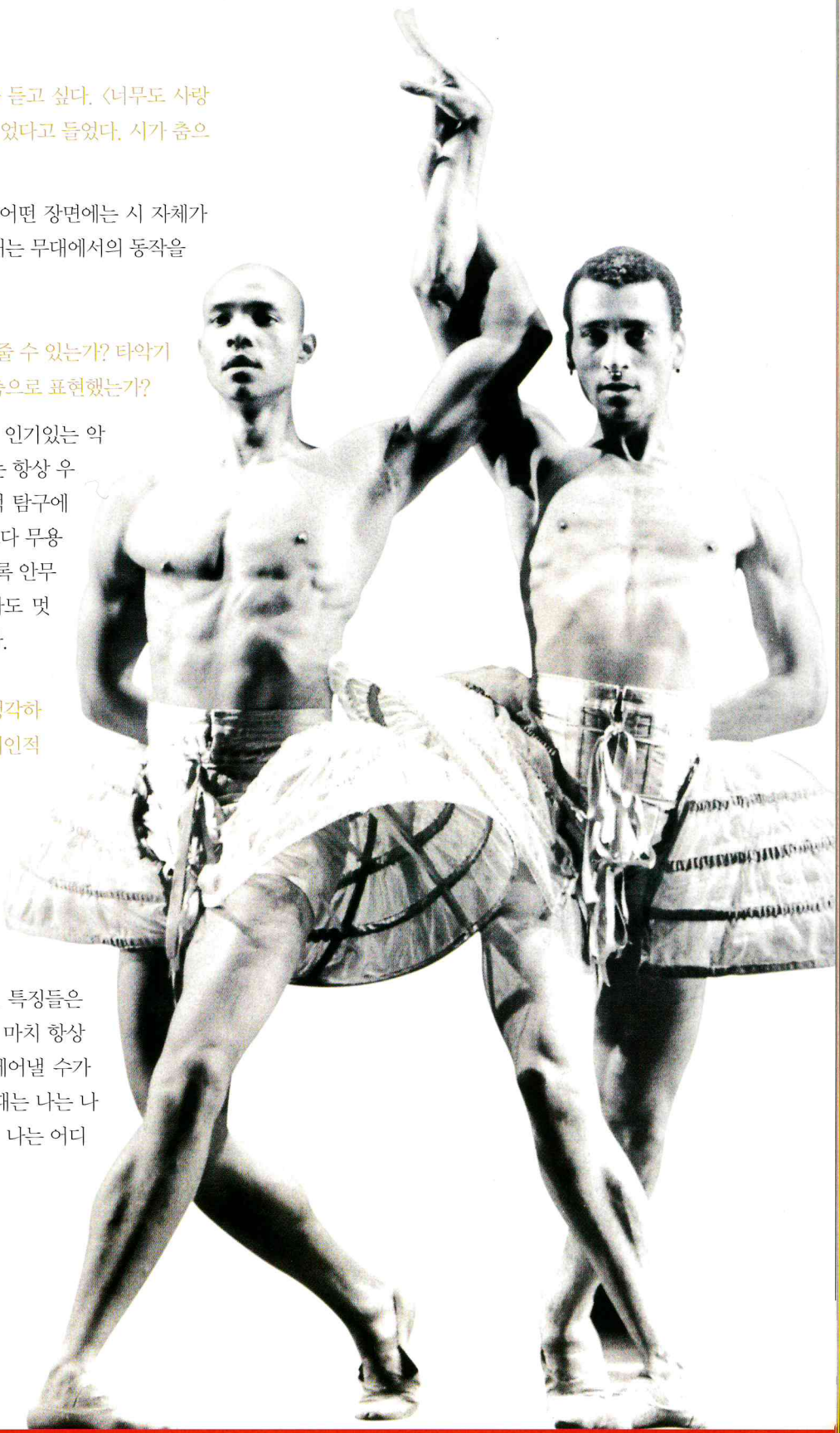
'살라파르타' 라는 악기에 관해서 좀더 말해 줄 수 있는가? 타악기 같은 소리가 나는가? 이 악기의 어떤 특징을 춤으로 표현했는가?

'살라파르타' 는 나무로 만든 바스크 지방의 인기있는 악기로, 매우 기본적인 종류의 소리를 낸다. 나는 항상 우리의 뿌리와 민속 악기의 기원에 대한 음악적 탐구에 관심이 많다. 이 작품에서는 다른 여타 작품보다 무용수들이 더욱 음악 그 자체와 악기를 반영하도록 안무했다. 동작으로 표현하는 음악과 춤의 너무나도 멋있는 세상을 반영하는 순수한 즐거움인 것이다.

당신의 작품에 스페인적인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나라의 무용단과 작업할 때는 스페인적인 요소를 어떻게 배제하는가?

나의 무용단이 플라멩코(flamenco), 토로스(toros) 또는 캐스터넷(castanet) 같은 일반적인 스페인적 특성을 띄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불빛, 향기, 바다색, 지중해 문화의 특징인 오픈된 성격 등 나의 지중해적인 기원을 드러내도록 노력할 뿐이다. 이런 특징들은 나 자신, 나의 교육, 나의 인생의 일부분이다. 마치 항상 입고 다니는 겉옷처럼 나는 이런 특징들을 떼어낼 수가 없다. 발레 작품을 통해 내 영혼을 펼쳐보일 때는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해야 하며, 최대한 정직해야 한다. 나는 어디에서건 지중해 사람이다.

글 : 한혜원 (월간 '객석' 6월호 전재)



Choreographer Nacho Duato *Interview*

What would you say about the "Jardi Tancat" you performed in Korea in 1988. What is your impression about your performance this time in Korea?

Jardi Tancat was the very first choreography of mine. I created it in 1983 for a workshop when I was a dancer in the Nederlands Dans Theater. Up to the present moment, it is the choreography that I have sold to more companies all over the world. It is very fresh and very honest. I really consider this piece as something special among all my works. In case of Korea,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the oriental cultures and the fact of being able to reach this audience, so far in the physical space but so close to my heart in so many ways, makes me extremely happy.

Of course, I have decided to bring more recent pieces this time, as what I would like to achieve with our presence in Seoul is to bring our own approach to dance to the people in Korea. I have always beleived in the incredible power of communication of the universal language of dance. It makes possible that people of different countries, with different cultures and languages can meet emotionaly at the same point. Isn't that magic?

Please explain the characteristics and strong points of Compañía National de Danza.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is a relatively young ensemble which brings its energy out of the fact of having an identity of its own. This means we have four to five new creations every year with the most reputed choreographers nowadays, and of course having me as the house choreographer. We try to bring a high quality performance to the audience, and this cannot be achieved without an enormous amount of enthusiasm, work and discipline. All my dancers have chosen to dance with me, and you can feel they love what they are doing.

You've been an art director of CND since 1990. What is your desirable future of CND?

My immediate target is to get a theater specifically conceived for dance in which the company could establish its regular home in Madrid. Of course, I would also insist on our expansion throughout the world, so that our name and work are known and recognised ab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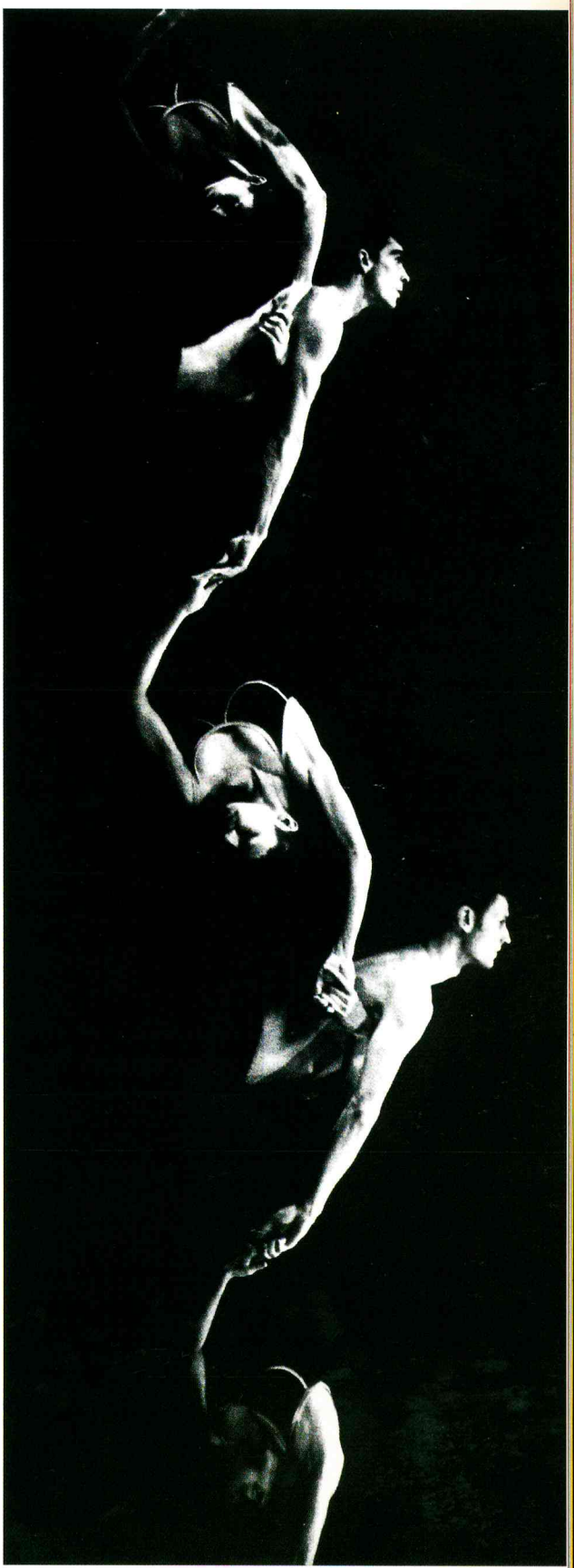
I really love to listen to your story when you were young. How could you have yourself recognized as a dance composer by Jirí Kylian?

I think a choreographer is someone who has an innate talent to build with movements the language of dance. Jiri just found out what I really did not know about myself: my abilities in the field of choreography. He was very generous and very supportive to give me this incredible opportunity. I owe a lot to him and I admire him immensely.

Please name those who have influenced your works.

Of course, Mr. Jirí Kylian was my inspiration at the beginning of my career. After all, I worked by his side for nine years. Apart of him, I do not think I have strong influences in my work. I arrived in Madrid in 1990 to direct my Company, and after all these years my vocabulary and style have developed and followed its own line. I really feel very detached now, very independent as a creator.

Not only are you a present excellent dance composer, but also you were an remarkable dancer. Do you still think of getting back to former days and dancing on the floor?



I still do it, very rarely, but sometimes I do dance a very short excerpt of a certain ballet. However, I have so much work directing and creating choreographies that I really don't think I will dance again regularly.

I'd like to listen about the performance you'll show in Korea this time. I've read an explanation that "Por Vos Muero" is made by inspiration from old musics and poem. Are there any special effect when poems are translated and expressed by dance?

I try not to interfere too much with the poetry. I prefer to slow down the motion on stage while the words are being said, as the power of the poetry itself is almost sacred in some moments.

Could you elaborate on the "Txalaparta"? Does it sound like a percussion instrument? And, what characteristics of "Txalaparta" have you expressed by dance?

The Txalaparta is a basque popular instrument made with wood, which provides a very basic range of sounds. I have always been specially interested in the musical research of our roots, of the original instruments in our folklore. In this piece, even more than in others, I play with the dancers as reflecting the instrument and the music itself. It is just for the pure joy of reflecting the wonderful world of the music in movements and dance.

Do you think your works have characteristics of Spain? How do you exclude the Spanish characteristics when you are working with dancing teams of other countries?

I do not think they have the topic Spanish characteristic, they do not include flamenco, toros, or castanets. What I try to reflect is our mediterranean origins, the light, the flavours, the colors of the sea, the openness of the people which conform the mediterranean cultures. This is something which forms part of me, of my education, of my own life. I cannot get rid of it as if it were a jacket. I have to respect myself, and try to be as honest as possible when I open my soul in every one of my ballets. No matter where, I belong to the mediterranean.

들판의 춤과 사랑의 비경(秘境)

세 번째 그의 한국 방문은 프랑스의 프렐조카주, 모나코의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 등 세계 무용계를 주름잡는 안무가들 중 선두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세 작품은 중세 시인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Garcilaso de la Vega)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너무도 사랑하는 그대(Por Vos Muero)〉, 바스크 지방 전통 타악기 연주와 춤과 만나는 〈살라파르타(Txalaparta)〉, 변주곡의 대가 코렐리와 스카를라티 곡이 지옥을 다루는 아리아로 변모한 〈아칸젤로 코렐리(Arcangelo)〉이다.

나초 두아토 안무 〈닫혀진 정원〉(6인무)과 처음 만난 게 1988년 국립극장 무대였다. 그 당시 리용 오페라 발레단이 내한했을 때였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다섯 개의 탱고〉를 안무한 한스 반 마넨, 〈빛〉을 안무한 닐 크리스티의 춤도 그 무대에 포함되어 있었다.

신고전주의를 주창하는 나초 두아토의 〈닫혀진 정원〉은 나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고 시 한편을 쓰게 했다. 시집 속에 수록한 시를 옮겨본다.

적막한 들이
더 적막해 보이는 들판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가을 햇빛에 발이 말라가고
심줄 두어 개 내비치다
감추던 레이스 치마 끝의
황혼색 잎사귀들이 흩어질 때
맞물린 무릎을 열며
앙상한 어깨가
소쿠리 같은 넓은 가슴에 안기던
〈닫혀진 정원〉이란
춤이 저녁의
흙냄새를 풍길 때
말뚝 서너 개 박혀있던 그 무대에

카탈루냐 지방 무명 가수였던 마리아 델 마르 보네가 부른 노래 또한 심금을 울려주었다. 1999년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무용학회에 참석하러 갔을 때 나는 그녀의 노래를 떠올리고 수소문 끝에 CD를 구했다. 〈닫혀진 정원〉을 보고(이 공연은 그후 서울에서 재공연되었다) 썼던 리뷰를 인용한다.

"나초 두아토가 안무한 〈닫혀진 정원〉에 매료된다. 무용작품에서 조명역할이 얼마나 크게 기여하는가를 보여준 예가 이 작품이다. 이 6인무는 무대세트라고는 크고 작은 말뚝 서너 개밖에 없다. 그러나 관객들이 〈닫혀진 정원〉에 빨려들어가는 것은 말뚝 위로 황량한 들판이 전개되기 때문이다. 흙냄새가 풍기고 젊은이들이 자기 짝을 찾는 밀어(密語)를 나눈다. 사랑의 상처를 주체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사는 마을이다. 이 6인무가 아름다운 것은 흙 빛깔에 가까운 로맨틱한 세 여자 무용수들의 의상 때문만도 아니고, 세 여자 중 어려 보이면서 비극적 눈망울에 금방 물기가 고일 듯한 샨탈 레퀴나(사실은 나이든 고참단원)의 품위와 퇴폐미가 풍기는 솔로, 2인무 때문만도 아니다. 16분짜리 소품이지만, 그 무대에는 인간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얼룩진 흔적이 있다. 그런 흔적들, 그런 끈끈함, 사랑의 좌초(坐礁), 비감이 깃든 저녁을 춤 뒤에서 애절한 육성으로 들려주는 것이 바로 마리아 델 마르 보네의 노래이다. 탁한 목소리로 신음하듯 울리는 그 노래는 카탈루냐 지방의 관능도 아울러 곁들인다. 〈닫혀진 정원〉을 보고 문득 '황혼색'은 언젠가 내 심상에 남아 있는 시의 수첩으로 이동한다. 여섯 사람이 나오던 무대에서 네 사람은 황혼을 바라보며 뒷등을 보이고 있고, 둘은 춤으로 '이제 떠날 때를' 알렸듯이..." (〈춤〉 1988년 4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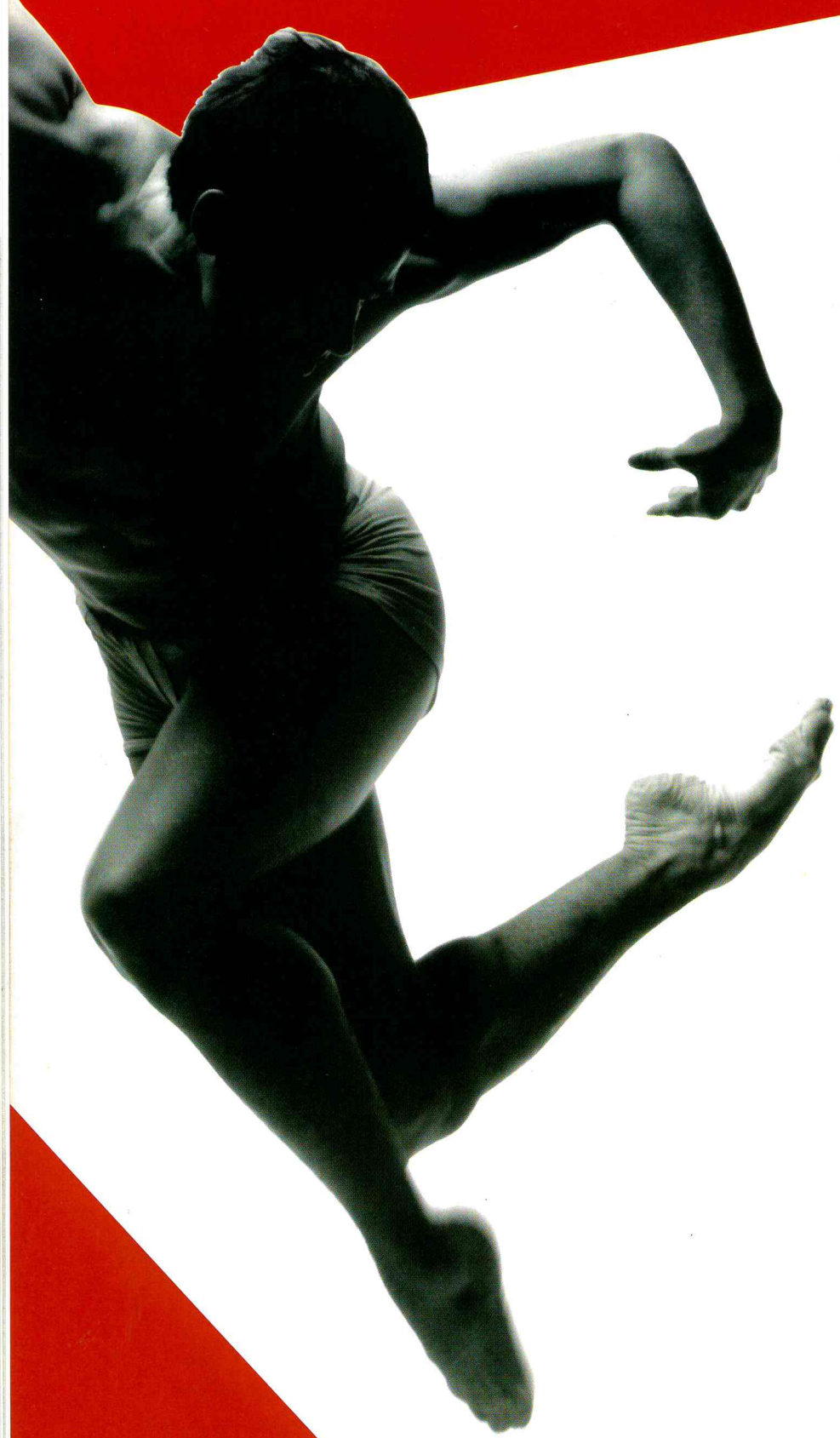
1988년 올림픽 문화축제에 스페인 마리아 로사 무용단도 내한했었다. 〈마른 장작으로〉, 〈어두운 사랑〉 등을 공연했다. 1989년에 안토니오 가데스 발레단도 내한해서 〈불꽃〉, 〈카르멘〉을 공연했다. 안토니오 가데스는 영화 〈카르멘〉을 감독하고 크리스티나 오이요스와 출연한 국립무용단(CND)을 이끌던 인물, 플라멩코 춤 속에 극적 요소를 가미한 장본인이다. 당시 카르멘 역은 오이요스 뒤를 잇는 신인 스텔라 아라우소였다. 무대를 흑과 백으로 처리한 안톤 그라아베 무대미술과 의상, 앙드레 지라드 편곡이 출중했다. 플라멩코 춤의 재해석으로는 가데스 작품보다 1998년 필리핀 국제무용제에서 만난 라몬 바에자르가 프랑코 총통 섭정 때 처형당한 시인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 시를 춤에 대비시킨 〈Oidos de Lorca〉를 뽑고 싶다. 그 작품은 로르카 죽음을 애도하는 안달루시아 지방 처녀들의 헌사였다. 처녀들의 춤은 무음(無音)으로 더욱 격렬했다. (〈몸〉 1998년 9월호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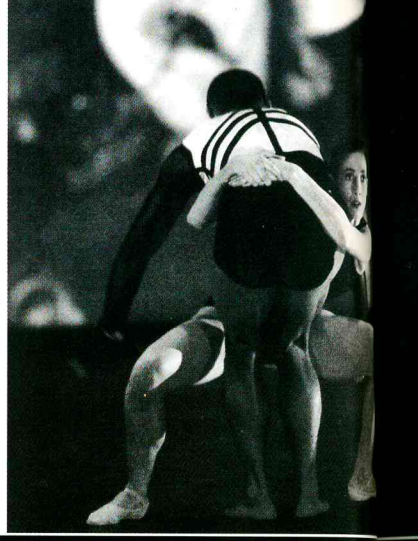
나초 두아토가 지리 킬리안이 이끄는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NDT)의 주역 무용수이자 제자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킬리안은 한스 반 마넨에 이어 나초 두아토를 NDT 상임 안무가로 임명했었다. 스페인 발렌시아 태생인 나초 두아토가 1990년 마야 플리세츠까야 뒤를 이어 국립무용단 예술감독으로 임명되기 전 필자가 네덜란드 댄스 페스티벌에서 본 작품이 〈비탄〉이다. 고레키의 〈슬픈자의 교향곡〉을 음악으로 쓴 〈비탄〉은 억압받고 고통받는 인간들을 주제로 다룬 화가 고야와 콜위츠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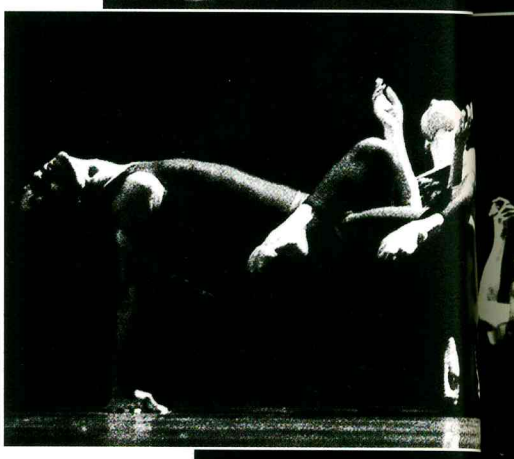
〈병사의 이야기〉(스트라빈스키 곡)에서 나초 두아토는 정의감에 불타는 병사였고 페스티벌 작품 한스 반 마덴 안무 〈검은 케익〉에서 황홀한 솔로를 춤추었다. 〈아름다운 얼굴〉, 〈앵발로〉 등이 킬리안의 신작들이었는데 나초 두아토는 〈에테르의 꿈〉, 〈아레날〉 등을 안무했었다. 나초 두아토가 킬리안의 영향을 받았지만 춤 색채는 달랐다.

세 번째 그의 한국 방문은 프랑스의 프렐조카주, 모나코의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 등 세계 무용계를 주름잡는 안무가들 중 선두라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세 작품은 중세 시인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Garcilaso de la Vega)의 시에서 영감을 얻은 〈너무도 사랑하는 그대(Por Vos Muero)〉, 바스크 지방 전통 타악기 연주와 춤과 만나는 〈살라파르타(Txalaparta)〉(안무자는 이 타악기 소리는 우리를 전율케 한다고 말했다), 변주곡의 대가 코렐리와 피아노 음에서 미세한 피아니시모의 극치에 도달했던 스카를라티 곡이 이번에는 지옥을 다루는 아리아로(변주 콘체르토 그로소 및 오페라 아리아) 변모한 〈아칸젤로 코렐리(Arcangelo)〉이다. 의상도 그가 직접 디자인했고 1996년부터 2001년에 안무된 근작들이다. 〈닫혀진 정원〉 이후 안무자 자신이 가장 애착을 갖는다는 〈너무도 사랑하는 그대〉가 어떤 '사랑의 비경(秘境)'으로 오페라극장에서 펼쳐질지 벌써 가슴이 두근거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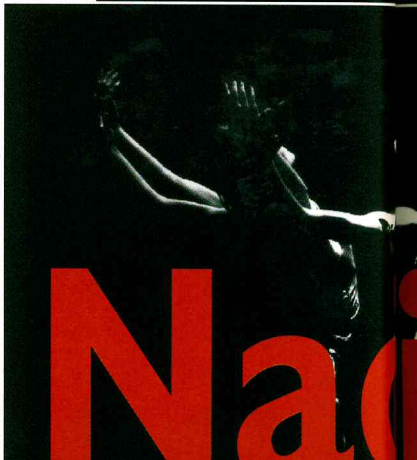
글 : 김영태 (시인, 무용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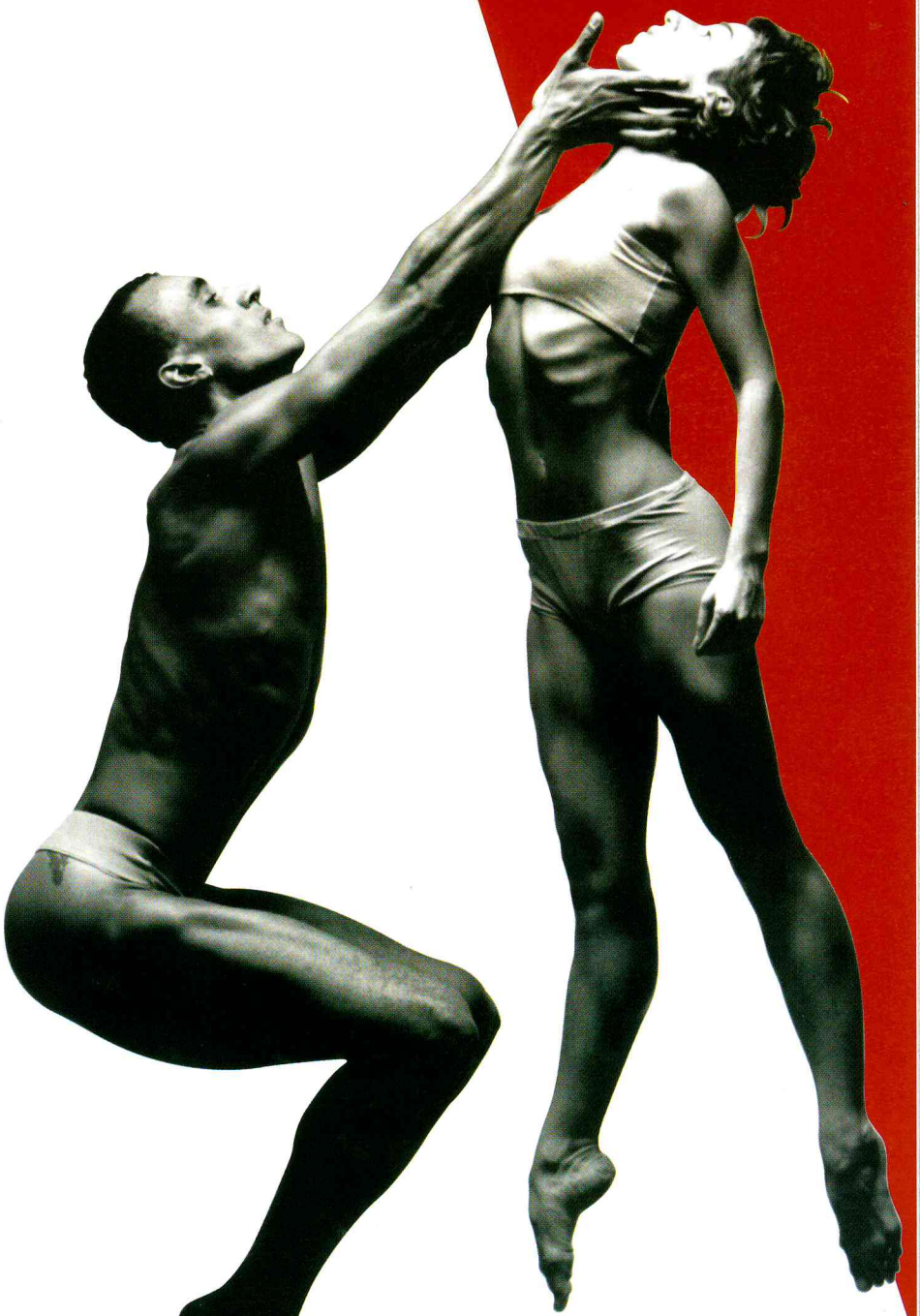
Compañía Na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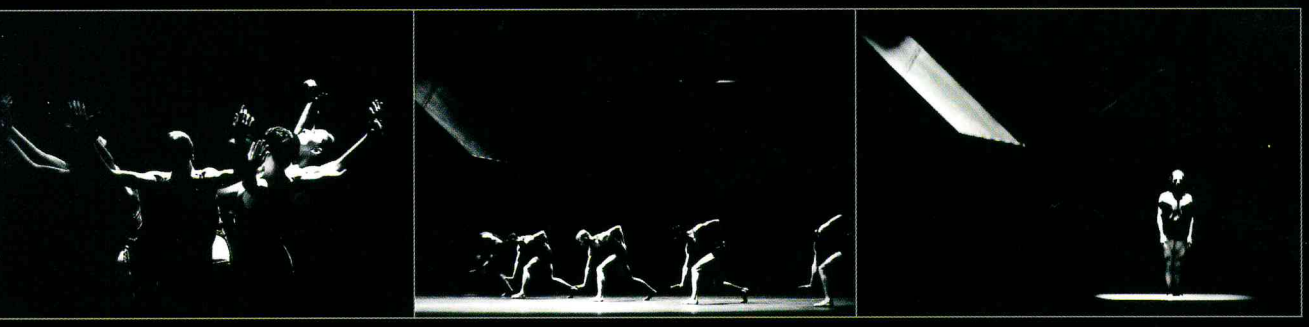








ional de Danza



Txalaparta

출연 Cast

6월 21일, 6월 22일 (3시30분 공연), 6월 23일
21st, 22nd (Matinee) and 23rd June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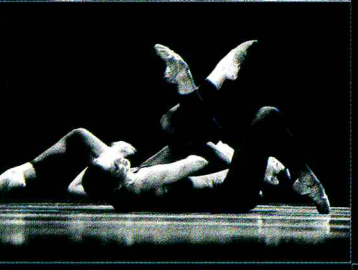
Tamako Akiyama, Iratxe Ansa, Luisa María Arias, Emmanuelle Broncin
África Guzmán, Christelle Horna, Miriam Kescherman
Patrick de Bana, Pedro Goucha, Amaury Lebrun, Luis Martín Oya
Rafael Rivero, Ivano Rossetti, Jacek Tyski

6월 22일 (7시30분 공연)
22nd (Evening Performance) June 2002

Liu Balocchi, Tamako Akiyama, Ana Tereza Gonzaga, Marina Jiménez
Emilija Jovanovic, Ruth Maroto, Yolanda Martín
Clyde Archer, José Carlos Blanco, Isaac Montllor, Dimo Kirilov
Thomas Klein, Rafael Rivero, Joel Toledo









Arcangelo

출연 Cast

6월 21일, 6월 23일
21st and 23rd June 2002

Tamako Akiyama, Patrick de Bana
Yolanda Martín, Luis Martín Oya
Luisa María Arias, Thomas Klein
Emmanuelle Broncin, Pedro Goucha

6월 22일
22nd (two performances) June 2002

Ruth Maroto, Ivano Rossetti
Yolanda Martín, Rafael Rivero
Liu Balocchi, Joel Toledo
África Guzmán, Dimo Kirilov

Por Vos Muero

출연

6월 21일, 6월 22일 (7시30분 공연)

Tamako Akiyama, Luisa María Arias, Ruth Maroto
Emmanuelle Broncin, Ana Teresa Gonzaga, África Guzmán
Patrick de Bana, Pedro Goucha, Dimo Kirilov
Luis Martín Oya, Rafael Rivero, Ivano Rossetti

6월 22일 (3시30분 공연), 6월 23일

Liu Balocchi, Cristina Hortigüela, Emilija Jovanovic
Miriam Kescherman, Ruth Maroto, Yolanda Martín
Clyde Archer, José Carlos Blanco, Thomas Klein
Amaury Lebrun, Isaac Montllor, Joel Toledo



Por Vos Muero 너무도 사랑하는 그대

안무 나초 두아토
음악 스페인 15, 16세기 고전음악
세트 나초 두아토
의상 나초 두아토 / 이즈마렐 아츠나르
1996. 4. 11 초연
자막 : 한글 자막

두아토는 스페인의 15, 16세기 고전음악과 스페인 황금세기의 최고 시인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Garcilaso de la Vega)의 아름다운 시에 영향을 받아 〈너무도 사랑하는 그대〉를 안무했다. 15,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는 무용가가 아니라 해도 누구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춤을 추었다. 그들은 결혼이나 장례식 같은 행사에서도 춤을 추곤 했을 정도로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즉흥적으로 나타나는 가공되지 않은 감정의 표출 수단으로 춤을 이용했다. 두아토는 르네상스 시대에 춤이 바로 사회와 문화의 중심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 작품을 만들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너무도 사랑하는 그대〉는 그 당시 사회적인 모든 일들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춤'에 대한 헌사인 것이다.

너무도 사랑하는 그대

나의 눈물은 그침 없이 내 몸을 적시고
고요했던 대기는 나의 탄식으로 산산이 부서졌소.
이 모든 것이 당신으로 인한 것이라 말하지 못함이
그 무엇보다도 나를 고통스럽게 하오.

노래.
내게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얘기를 했지만
나는 더 많은 것을 생각했고.
그리고 이제 더 묻지 않는다 해도
말하려 하오.

당신에게 시선을 빼앗겨보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행복해질 수 없소.
불행해질 수도 없소.
당신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영광이
당신을 탐하는 그 순간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오.
당신을 알지 못한다면
어떠한 누구도 행복이나 절망을 느낄 수 없을 것이오.
당신에게 시선을 빼앗겨보지 않았다면...

당신이었기에 가능했던
혼인식의 그 모든 경이로움에
사람들은 소문에 소문을 이어가며
두려움까지도 느끼고 있소.
평범한 물을 신성한 포도주로 변화시키듯
하찮은 춤을 웃음의 원천으로 승화시키는
당신의 그 모습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당신은 돌아와야 하오.

이 무덤 위로 흘려버린,
이 무덤 위에 흘러내린 나의 눈물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 해도 계속될 것이오.
끝없는 어둠의 밤이
그와 함께 날 떠난 당신을 바라보던 나의 눈을
영원히 잠재워버릴 때까지...

당신의 모습 하나 하나가
나의 영혼에 아로새겨져 있소.
내 모든 것을 바쳐 당신에 대한 글을 쓰고 싶지만
당신에 대한 글은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소.
나는 오직 그것을 읽고 따르기만 할 뿐...

이를 위한 내 마음 언제나 당신을 위하며
그 마음 영원할 것이오.
당신 안에서 발견한 모든 것을
지금 이 순간 내가 감당할 수 없다 해도
당신에 대한 신념이
내가 이해하지 못한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게 하기 때문이오.

오직 당신을 사랑함이 내 존재의 이유이며,
당신만이 내 영혼을 규정할 수 있소.
그리고 난, 그 영혼이 시키는 대로
바로 당신을 사랑하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대로 인한 것임을,
당신을 위해 내가 태어났음을,
당신을 위해 내가 죽고, 또 내가 삶을
내가 당신을 위해 죽어야 하고, 죽을 것임을
당신에게 고백하오.

가르실라소 데 라 베가의 시를 바탕으로 구성됨

Por Vos Muero

Cast

21st and 22nd (Evening Performance) June 2002

Tamako Akiyama, Luisa María Arias, Ruth Maroto
Emmanuelle Broncin, Ana Teresa Gonzaga, África Guzmán
Patrick de Bana, Pedro Goucha, Dimo Kirilov
Luis Martín Oya, Rafael Rivero, Ivano Rossetti

22nd (Matinee) and 23rd June 2002

Liu Balocchi, Cristina Hortigüela, Emilija Jovanovic
Miriam Kescherman, Ruth Maroto, Yolanda Martín
Clyde Archer, José Carlos Blanco, Thomas Klein
Amaury Lebrun, Isaac Montllor, Joel Toledo





2002 FIFA 한일 월드컵으로 세계인의 관심이 우리나라로 모인 가운데 예술의전당은 세계 정상의 안무가인 나초 두아토와 그가 이끄는 스페인 국립무용단을 초청하였습니다.

스페인 국립무용단은 스페인의 문화적 자존심을 지켜온 오랜 전통의 무용단입니다. 국내 팬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1990년 유럽 무용계의 주목을 받아온 젊은 거장 나초 두아토를 예술감독으로 영입하면서 금세기 최고의 무용단으로 우뚝 선 단체입니다. 예술감독인 나초 두아토는 현존하는 최고의 안무가 지리 킬리안의 뒤를 잇는 차세대 최고의 안무가입니다.

그동안 예술의전당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예술가와 작품들을 소개하여 국내 관객들이 고급예술의 진수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나초 두아토가 이끄는 스페인 국립무용단 역시 관객 여러분께 기대 이상의 예술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감히 자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 무대에 해외의 대규모 현대무용단을 초청하여 소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만, 최상의 작품으로 최고의 극장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이번 공연을 주저없이 선택하게 해주었습니다.

이번 서울공연에서 선보일 세 작품은 모두 나초 두아토가 안무한 작품입니다. 특히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방 민요에 기초한 〈살라파르타〉는 한국 관객만을 위해 선정한 두아토의 대표 작품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공연이 우리 무용 애호가를 비롯한 국내 관객 여러분들에게 현대발레의 진수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월드컵 축구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서도 오늘 이 공연을 찾아주신 관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수준 높은 무대로 한국을 찾은 스페인 국립무용단과 이번 무대를 위해 애써주신 SBS, LG전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술의전당 사장
김 순 규

As the world focuses on the celebration of the 2002 FIFA Korea-Japan World Cup here in Korea, the Seoul Art Center has proudly invited the world renowned artist Nacho Duato and the Spanish Compania Nacional de Danza to be part of this world festivity.

The Compania Nacional de Danza is a time-honored ballet troupe that has guarded the pride of Spain's rich culture. Though the Korean audience may not be too familiar with its fame, the troupe has become one of the best in its field in this century with the new leadership in 1990 of Nacho Duato, acclaimed as one of the best in the European dance circle. The artistic director Duato follows the step of Jiri Kylian as the summit in the ballet world.

The Seoul Art Center has been exerting to continuously provide for the Korean audience the opportunity to enjoy the best of the artistic world by presenting global artists and works. I take pride in expressing with confidence that the Compania Nacional de Danza led by Nacho Duato joins the league of the world's best that will go beyond the audience's expectations. By all means, it is not easy to invite such a large-scale dance troupe to the Korean stage. However, here at SAC, we have without hesitation taken this particular decision with the determination in maintaining the tradition of being the best theater in the nation that present world-class artists and stages.

Nacho Duato himself has choreographed the 3 works that will be presented on the Seoul stage. Especially, "Txalaparta," which is based on traditional music from the Basque region in the northern part of Spain, is Duato's representative work especially selected for the Korean audience. I sincerely hope that tonight's stage will provide the setting for Koreans and dance aficionados to enjoy the summit of modern dance.

I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thanks for joining us tonight amid this football fever of the World Cup. I also take this opportunity to thank SBS and LG Electronics for their unsparing support in making this world-class stage possible. Thank you very much.

Mr. Kim Soon Kyu
President of the Seoul Art Center

Por Vos Muero 너무도 사랑하는 그대

Choreography Nacho Duato

Music Old Spanish Music-XV and XVI centuries

(Cancons de la Catalunya mil-lenaria - El Mestre, popular of Catalonia by La Capella Reial de Catalunya, directed by Jordi Savall; Canciones y Danzas de Espana, and Espana, Antologia de la Musica Espanola)

Sets Nacho Duato

Costumes Nacho Duato and Ismael Aznar

Text Garcilaso de la Vega

Worldpremiere by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at Teatro de Madrid, 11th, April, 1996

Duato has been inspired in old Spanish music of XV and XVI centuries together with some of the most beautiful verses of the Spanish poet Garcilaso de la Vega. Music and poetry connect the obvious contemporary dance of *Por Vos Muero* to his historic reference.

In XV and XVI centuries dances formed part of the cultural expression of people, including all social hierarchies, and therefore they produced a honest reflection of culture of that time. *Por Vos Muero* wants to pay a tribute to the very important role that dance played in every sort of social event during those ancient times.

Por Vos Muero

I am continuously bathed in tears
always breaking the air with sigh
and I am even more hurt by not telling
I have arrived at this point because of you

Song, I have told more than ordered
and less than I thought
do not ask me more, cause I will tell it.

No one can be happy, madam
nor unhappy, unless he has looked at you
cause the glory of seeing you vanishes
in the moment one thinks of deserving you
therefore, without knowing you,
no one can be happy, madam
nor unhappy, unless he has looked at you

People get scared
as you made them all gossip
cause a miracle you made
had to happen in the wedding
I think you have to come
if you continue on that way
to turn water into wine
as well as dance into laugh

Tears that on this grave
pour and were poured, receive,
although they will be fruitless
until that eternal, dark night
close those eyes which saw you
leaving me with other ones to see you

Written on my soul is your gesture
and all I desire to write about you
you yourself wrote it, I only read it
that even on that matter I follow you

In that I am and will be ever ready
cause even though I cannot cope
with as much as I see in you
from so much good, I believe in
what I cannot understand
taking the faith us premi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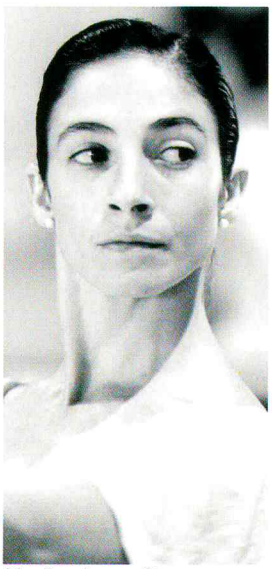
I was not born but to love you
my soul is patterned to
your measures and because
of its habit I do love you

I confess to owe you all I have
for you I was born, for you
I am alive for you I have to die,
and for you I die.

Rewritten Based on the poem by
Garcilaso de la Vega

Principal Dancer


Tamako Akijama


Mar Baudesson Siera


Emmanueelle Jakelline Broncin


Thomas Kelin


Luis Matin Oya


Africa Lopez Guzman


Rafael Rivero Herv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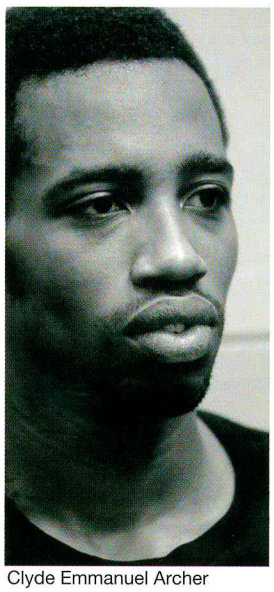

Ivano Roset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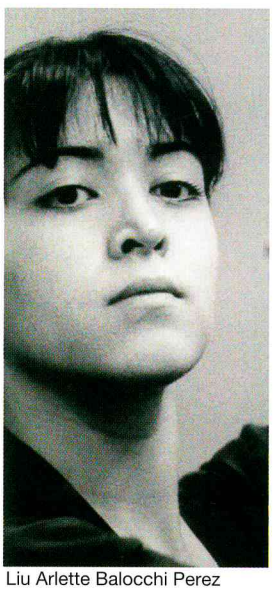

Patrick Aidan Okechukwu

Dancer


Iratxe Ansa Santesteb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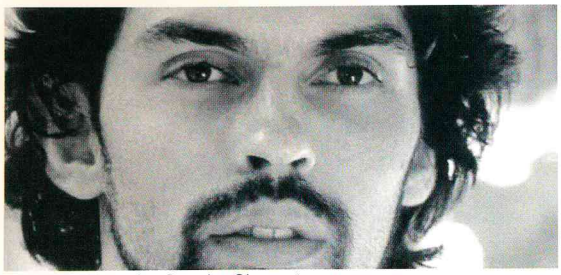

Luisa Maria Arias


Clyde Emmanuel Arc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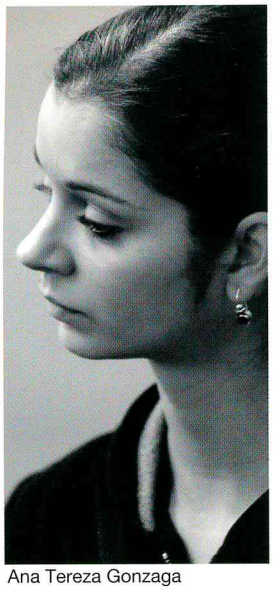

Liu Arlette Balocchi Pere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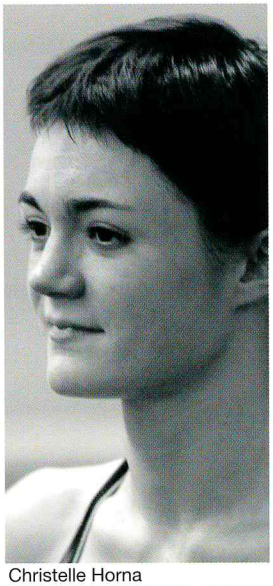

Jose Carlos Blanco Martínez


Emilija Jovanov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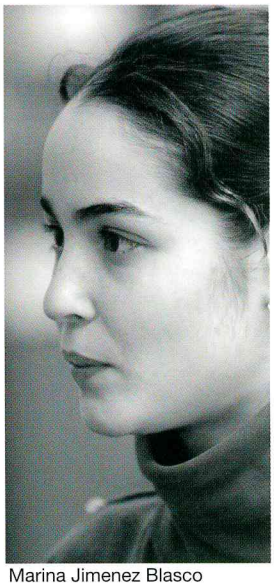

Pedro de Noronha Goucha Clemente


Christina Hortigüela Die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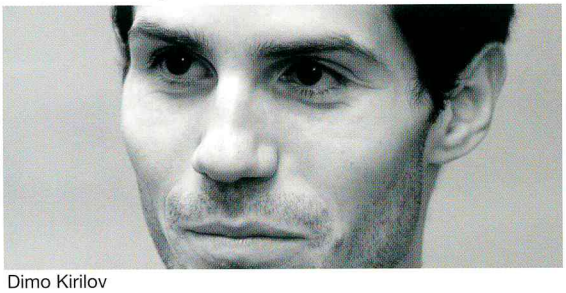

Ana Tereza Gonzaga


Christelle Hor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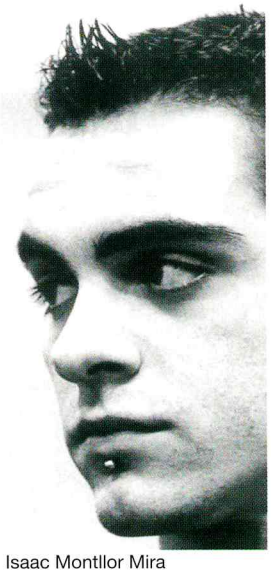

Fabrice Cedric Raphael Edelman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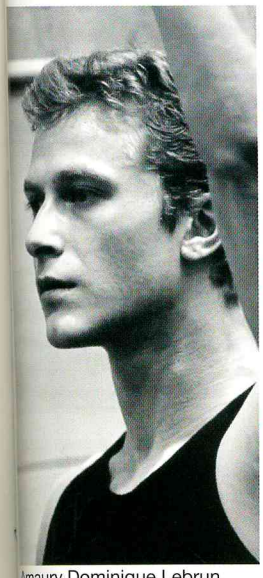

Marina Jimenez Blas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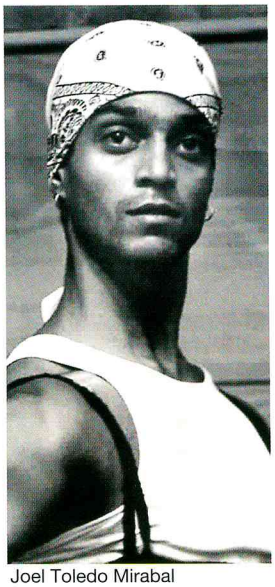

Miriam Judith Kescherman


Dimo Kirilov


Yolanda Martín García


Isaac Montllor Mira


Amaury Dominique Lebrun


Joel Toledo Mirabal


Jacek Tyski


Ruth Maroto Sobrado

스페인 국립무용단

예술감독 | Nacho Duato

조감독 | Kevin Irving
Carlos Cesar

리허설 감독 | Yoko Eva Taira Alonso

발레 마스터 | Herve Freddy Palito

매니저 | Isabel Sanchez Barreno

홍보 | Maria Teresa Villanueva Penalver

피아노 | Oscar Barrangan Herraiz

기술감독| Javier Martinez Femandez

음향 | Pedro Alvaro Jabardo
Jesus Ramon Santos Gonzalez

전기 | Juan Carlos Gallardo Alamillo
Lucas Gonzales Hermando

기계 | Cristobal Lopez Hermandez
Azucena Ortega Femadez
Marcelo Suarez de Fiqueroa Buceta

기술 | Reyes Snachez Gutierrez

소품 | Jose Luis Mora Viturro

물리치료 | Francisco Manzanera Aparicio
Mateo Martin Prieto Garcia

의상 | Valeriana Bon Rubio

에이전트 | Didier Le Besque

예술의전당

공연사업국장 | 안호상

공연기획팀장 | 고희경
윤미경, 길찬균, 박민정, 최석중, 김영랑
이승진, 서현숙, 채예림

무대기술팀장 | 장재욱
기술감독 | 윤기선
무대감독 | 김미희
장치감독 | 임채홍
기계감독 | 김인현
조명감독 | 공준택
음향감독 | 박재경

장치파트장 | 구본학
장치설치 | 윤대성, 이상수, 박준현
의상 | 이상은
소품 | 이윤호

기계파트장 | 송기봉
기계설치전환 | 최현규, 이용상
안전 | 이용석, 유정훈

조명파트장 | 공준택
조명 | 길준웅, 이태훈, 강소진

음향파트장 | 변영태
녹음, PA, 효과, 편집 | 정 원, 전용덕

홍보마케팅팀장 | 박민호
마케팅 | 임종호, 윤한아
홍보 | 윤동진, 배민경(정보지), 정해정
사진 | 이준호
회원 | 김낙곤

공연장운영팀장 | 유남근
진행 | 박상훈, 양우제, 방수진
매표관리 | 길세연, 김성은
통역 | 조백희, 채예림, 정혜리
홍주희, 방성희
인쇄물원고 | 김지항
홍보물디자인 | DesignFEEL 최지형
홈페이지배너 제작 | 조미연
육교현판 제작 | 모티브

SBS 에스비에스

문화사업국장 | 정동천

문화사업팀 | 고성진

TV SPOT 제작 | 최지원

Compañía Nacional de Danza

Artistic Director
Nacho Duato

Assistant Director
Kevin Irving, Carlos Iturrioz

Principal Dancers
Mar Baudesson, Emmanuelle Broncin
Tamako Akiyama, Thomas Klein
Rafael Rivero, Ivano Rossetti
Africa Lopez, Luiz Martín, Patrick Okechukwu

Dancers
Iratxe Ansa, Luisa María Arias, Liu Balocchi
Ana Tereza Gonzaga, Christelle Horna
Marina Jiménez, Emilija Jovanovic
Miriam Kescherman
Yolanda Martín, Clyde E. Archer
José Carlos Blanco, Fabrice Edelmann
Dimo Kirilov, Amaury Lebrun, Isaac Montllor
Joel Toledo, Jacek Tyski, Pedro de Noronha
Christina Hortigüela, Ruth Maroto

Rehearsal Director
Yoko Taira

Ballet Master
Hervé Palito

Pianist
Oscar Barragan

Press
Maria Teresa Villanueva

General Manager
Isabel Sanchez

Stage Manager
Javier Martínez

Electricians
Lucas González, Juan Carlos Gallardo

Technician
Reyes Sanchez

Audio Technician
Pedro Alvaro, Jesus Santos

Machinist
Cristobal Lopez, Azucena Ortega
Marcelo Suarez

Wardrobe
Valeriana Bon Rubio

Properties
José Luis Mora

Phisical Therapists
Mateo Martín
Francisco Manzanera

Seoul
Arts
Center
Presents

2002 서울오페라페스티벌

베르디의 "오텔로"

The Royal Opera House Production

베르디의 오페라로 거듭난 셰익스피어의 「오텔로」, 영국 로열 오페라의 작품으로 만난다

매년 수준높은 무대로 격찬을 받고 있는 예술의전당 오페라 페스티벌. 지난해 「가면무도회」에 이어 2002년 가을, 베르디의 「오텔로」로 다시 한번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페라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걸작으로 손꼽히는 데도 불구하고 국내 무대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들었던 「오텔로」, 이번 공연에는 국내 최초로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의 연출과 무대, 의상을 들여오고 국내외 정상의 성악가들이 출연해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셰익스피어 원작의 감동과 베르디의 음악적 깊이를 만끽하실 수 있는 이번 오페라를 기대해 주십시오.

영국 로열오페라하우스 프로덕션 The Royal Opera House Production
연출 엘리야 모진스키 Elijah Moshinsky | **조연출** 빌 뱅크스 존스 Bill Bankes Jones
무대디자인 팀 오브라이언 Tim O'Brien | **의상** 피터 J. 홀 Peter J. Hall | **조명** 로버트 브라이언 Robert Bryan
지휘 카를로 팔레스키 Carlo Palleschi | **연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국립오페라단 | **출연** 김남두, 이동현, 조경화, 김은정, 우주호, 김승철

2002. 10. 9(수) - 10. 12(토) 7:30 pm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및 예매 | (02)780-6400

입장권 |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7만원, B석 5만원, C석 3만원
(초 · 중 · 고 · 대학생, 예술의전당 회원 20% 할인) ※**예매시작** 회원 7월 1일 / 일반 7월 10일

Seoul
Arts
Center
Presents

SAC Dance Series Ⅱ 예술의전당 댄스 시리즈 No.2

THREE DIMENSIONS OF DANCE
NEDERLANDS DANS THEATER
NDT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 초청공연

Nederlands Dans Theater Ⅰ

"구태의연한 발레의 틀을 깨라..." 잊을 수 없는 충격!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가 다시 온다

1999년 첫 내한공연으로 폭발적 호응을 얻었던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NDT 1)가 다시 한국을 찾습니다. 세계 공연계가 이의없이 그 천재성을 인정하고 있는 세계적 안무가 지리 킬리안, 구태의연한 발레의 틀을 깨고 새로운 테크닉과 상상을 초월하는 무대, 음악과 기막힌 조화를 이루는 안무로 지난 수십 년간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네덜란드 댄스 씨어터의 내한공연을 놓치지 마십시오.

PROGRAM
NO MORE PLAY · PETITE MORT · SH-BOOM 外

2002. 10. 16(수) – 10. 19(토) 7:30 pm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및 예매 | (02)780-6400

입장권 | R석 9만원, S석 7만원, A석 5만원, B석 3만원 (예술의전당 회원 20% 할인)

예술의전당 Seoul Arts Center

예술의전당

| 사장 | 김순규

| 이사회 |
이사장 정재석
비상임 이사 김재철 정진흥 이중한 이세웅 이규도 김형규 박권상 방상훈 오명 김서봉 손숙 김각중
당연직 이사 윤형규 김정옥 강대인

| 상임감사 | 성수현
| 공연예술감독 | 윤호진
| 음악예술감독 | 김홍식
| 전시예술감독 | 유재길

| 공연사업국장 | 안호상
| 운영국장 | 곽정석

| 공연기획팀 |
고희경(팀장) 이철순 윤미경 태승진 정동혁 길찬균 박민정 최석중 조현아 김영랑 염기영

| 공연장 운영팀 |
유남근(팀장) 김승배 박상훈 손미정 길세연 최진숙 성은미 이현기 양우제 조수미 장유진 박수연

| 무대기술팀 |
장재욱(팀장)
무대진행 윤기선 오충식 김미희 유우식 현연아 유지희
무대장치 구본학 임채흥 이윤호 윤대성 권규완 김상근 이상은 이상수
무대기계 송기봉 김인현 최현규 유재일 이용상 이용석 류동신 유정훈
무대조명 천세기 공준택 길준웅 박남석 이보만 오승천 이태훈 박천일
무대음향 김효균 변영태 서창석 윤경석 박재경

| 홍보마케팅팀 |
박민호(팀장) 임종호 윤동진 배민경 이상미 김낙곤 김지영 이준호

| 경영지원팀 |
전해웅(팀장) 최강수 김영곤 이원호 황복희 송종준 박상현

| 총무팀 |
조내경(팀장) 김광수 정재영 안진모 곽동희 박치웅 권부윤 안희국 김혜수 김명옥 박혜숙 박정이 한석훈 김형목 임창흥

| 시설관리팀 |
이용욱(팀장) 이환희 이은관 이재상 염기섭 조종구

| 전시사업팀 |
박성택(팀장) 문창국 채홍기 이동국 김윤조 김인서 조성문 최종철 서민석

| 교육사업팀 |
조석준(팀장) 배성기 이미숙 이재석 김희진 정규승

| 검사역 | 신영균

예술의전당 후원회

| 임원단 |
회장 김영수
고문 송 자 박성용 김상하 이종구
감사 최무훈 박선주
부회장 김영호 박영주 한상우
이사 곽수일 강희철 김양자 김용원 김의재 김창실 김현실 박기석 박승택 서민석 신영무 유정주 윤윤수 윤의숙 이기남 이영혜 이운형 이인호 이재식 정우철 지성한 최왕언 최종률 허 참
자문위원 홍라희 박희주 이현자

| 무궁화 회원 |

김영호	일신방직 회장
대일건설(주)	법인대표 박희주 / 김춘강
이건희 / 홍라희	삼성문화재단 이사장/호암미술관장
한국가스공사	법인대표 김명규 / 정경숙
한국전력공사	법인대표 최수병 / 김정자
윤세영 / 변금옥	(주) SBS 회장
박성용 / Marguerite C. Park	금호그룹 명예회장 약정(현.목련회원)
이건산업 (주)	법인대표 박영주 / 박인자 약정(현.모란회원)

| 모란회원 |

Hubert Abrons / 이현자	뉴욕시티오페라이사, 링컨센타 후원회원
(주) SK	법인대표 손길승 / 박연신
LG 칼텍스 정유(주)	법인대표 허동수 / 김자경

| 동백회원 |

서민석 / 여경주	동일방직(주) 회장

| 목련회원 |

김영수 / 원종순	변호사,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양 웅	웅덴탈크리닉 원장
이종구	이종구심장내과 원장
지성한 / 이영주	한성실업 회장
허 참 / 홍애자	명지유통 회장
손병찬 / 정미애	한국태양에너지학회 회장/(주)골드맥스 대표이사

| 석류회원 |

고병헌 / 장명숙	(주)금비 회장
구병삼 / 김양자	전 고려대의무부총장 / 예맥화랑 대표
권성문 / 박혜원	KTB network 대표
김상하 / 박상례	(주)삼양사 회장
김성기 / 오순희	한성자동차(주) 대표
김영무 / 신수희	김&장 법률사무소 대표
김용원 / 신갑순	도서출판 삶과꿈 대표 / 발행인
김운용 / 박동숙	대한체육회장, IOC 집행위원
김은수 / 이영지	로제화장품 회장
김태경 / 강금실	도서출판 이론과실천 대표 / 변호사
김효순	
박기석 / 천승주	(주)시공테크 대표
박부일 / 권경순	다다실업 회장
박선주 / 양정옥	변호사
박세종 / 서혜숙	(주)세종공업 대표
박승택 / 이주영	박승택한의원 원장
박인호 / 김도희	서울중앙병원정신과 교수 / 작가
박주선 / 이현숙	국회의원
송 자 / 탁순희	(주)대교 회장 / 의사
신영무 / 김현실	법무법인 세종 대표
신준식 / 김정자	(주)신양산업 회장
양동훈 / 남현숙	유니온통산(주) 대표
유정주 / 이경혜	변호사
윤윤수 / 이효숙	휠라코리아(주) 대표
윤의숙	(주)아이디에이 대표
이동훈 / 김영혜	(주)제일화재해상보험 회장
이문호 / 이기남	(주)신명시스템 대표/한국이스라엘상공회 이사장
이민주 / 신인숙	조선무역(주) 회장
이상렬 / 박은희	(주)메트로프로덕트 대표 / 한국페스티발앙상블 음악감독
이상일 / 박덕순	(주)일진산업 대표
이석형 / 하인수	변호사
이수성 / 김경순	평화통일을 위한 복지기금재단 이사장
이우백 / 염각경	(주)조우니 대표
이운형 / 박의숙	세아제강(주) 회장
이정익 / 윤영자	(주)서광전기 대표
이종용 / 한경진	한림미술관장
이종호 / 홍임선	(주)중외제약 회장
이태희 / 조현숙	변호사
이해규 / 안송자	삼성중공업(주) 부회장
이호현 / 김창실	(주)선 화랑 대표
임종빈 / 이화일	(주)뉴서울호텔 대표
정몽원 / 홍인화	한라건설(주) 회장
정우철 / 정윤숙	(주)일삼 대표
정윤표 / 김현실	정치과의원 원장
지종한 / 김현옥	경진상사 사장
최명부 / 민절자	변호사
최왕언 / 은광환	성부실업(주) 회장
한상우 / 신승애	음악평론가

| 장미회원 (평생-부부) |

강은엽 / 김소라	계원예대 부학장
강학중 / 조경희	한국가정경영연구소 소장
곽수일 / 최청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권혜숙 / 송여진	플루티스트
금난새 / 홍정희	지휘자
김경원 / 박애경	사회과학원 원장
김경준 / 강정숙	제성병원 이사장
김성진 / 전성결	(주)파라다이스 고문
김유후 / 김용내	변호사
김영준 / 이영자	한일카페트 사장
김의석 / 유진아	변호사
김의재 / 정선숙	변호사
김정배 / 오윤자	고려대학교 총장
김주인 / 김춘강	(주)사-즈 회장 / 대한어머니회 회장
김진현 / 민태희	문화일보 고문
김행술 / 이혜숙	JW 테크 회장
문덕만 / 심영자	88프로모션 회장
문호근 / 정은숙	국립오페라단 단장
박선우 / 공영자	장훈학원 이사장
박용정 / 임광자	아이티맥스(주) 회장
배기원 / 여정옥	대법관
이교상 / 신아림	(주)홀리데이인호텔 실장
양천구 / 조문순	남성해운항공(주) 대표
윤병철 / 이정희	우리금융지주회사 회장
이관우 / 박위자	한국몽골협력협회 회장
이기동 / 박온자	(주)서울조구 대표 / 서울여대도서관장, 문헌정보과 교수
이민교 / 김효실	아이비씨 로 그룹 고문
이병담 / 조숙미	전 현대산업개발 부사장
이성준 / 최정윤	서울신경통증크리닉 원장
이승준 / 최현분	(주)진보식품 대표
이영조 / 김정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이용우 / 김은자	대법관
이우석 / 황순희	동아수출공사 대표
이원희 / 이영애	한국보이스카웃연맹 총재
이재식 / 윤임숙	변호사
이종덕 / 김영주	세종문화회관 총감독
이종태 / 이문경	송백회 사무총장
이현구 / 최순희	(주)까사미아 대표
이홍주 / 장정림	뮤직라이브러리 대표
정성진 / 서신덕	국민대 총장
정환상 / 정리정	(주)클라라, 라스포사 대표
차성윤 / 김정자	세종학원 이사장 / 성정문화재단 이사장
최무훈 / 이경희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최종률 / 신연자	한국 ABC협회 회장
최종욱 / 조동옥	(주)SKM 회장
한호형 / 이영숙	변호사
황병주 / 신명옥	동영물산(주) 회장
황세영 / 정경자	황세영산부인과병원 원장
홍건희 / 이봉순	한국타이어 부회장

| 장미회원 (평생/개인) |

고광복	용인송담대 교수
강화자	강화자베세토오페라 단장
곽태식	장미악기 사장
김봉임	서울오페라 단장
김은영	
김진숙	연세대 비서과장
김희진	상명대음대 겸임교수
노미경	피아니스트
박성동	(주)파크랜드 사장
박정택	변호사
박한용	
손동창	(주)퍼시스 회장
신경욱	전 서울예고 교장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
인영기	동화통상(주) 대표
양계남	조선대미대 교수
양수화	글로리아오페라단 단장
이기춘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이수연	피아니스트
이인호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장혜원	이대음대 교수
조선제	교원공제회 이사장
지영년	교 사
최영철	송담학원 이사장
최흥용	진성상역(주) 회장
하성호	(사)서울팝스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
홍원선	서울중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 장미회원 (년-부부) |

김남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김종찬	한일광고 사장
김한경	KPR&ASSOI,INC 대표
심치선	계원예고 교장
안태영	서울중앙병원 비뇨기과 교수
이재숙	
이은진	LPI 대표
이태영	태준제약 회장
최승혜	IMC 대표
한현주	월간네이버 대표

| 장미회원 (년-개인) |

김남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김종찬	한일광고 사장
김한경	KPR&ASSOI,INC 대표
심치선	계원예고 교장
안태영	서울중앙병원 비뇨기과 교수
이재숙	
이은진	LPI 대표
이태영	태준제약 회장
최승혜	IMC 대표
한현주	월간네이버 대표

| 진달래 회원 |

강경희	(주)삼진타워 사장
신용균	바시스 산업(주) 대표
안한상	명지대 교수
양 인	갤러리 인 대표
우정희	동서한방병원 부원장
이원영	중앙대 유아교육과 교수
장 명	나리빌딩 대표
전성자	성신여대 불문과 교수
전효택	서울대 공과대 교수
한인권	삼성제일병원 기조실장
홍석규	(주)보광 사장

국립발레단
KOREA NATIONAL BALLET

Dynamic Korea Festival 2002

발레 돈키호테
Don Quixote

소설보다 재미있고 영화보다 유쾌한 발레



- 발레가 처음이라는 분께 더욱 권해드리고싶은 작품!
- 한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몰아내는 경쾌한 춤의 향연!
- 유럽 일류 디자이너가 선사하는 화려한 무대와 의상!
-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세 주역 커플과 탄탄한 군무!

바 질 | 이원국, 장운규, 이원철
키트리 | 김주원, 김지영, 코리나 드미트레스큐

예술감독 | 김긍수 **음악** | 루드비히 밍쿠스 **안무** | M. 프티파, A. 고르스키
디자인 | 제롬 캐플랑 **조명** | 베르나르 이브 **지휘** | 후쿠다 가즈오 **관현악** |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2002. 6. 28(금) ~ 7. 3(수)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예매 | 티켓링크 1588-7890 www.ticketlink.co.kr

입장권 | VIP 80,000원(프로그램 및 무료주차권 증정) R 60,000원 S 45,000원 A 30,000원 B 20,000원 C 10,000원 D 8,000원



모두들 스코어에 빠져 있을 때
승자의 눈물 한방울까지 보는 당신,
당신은 그 차이를 압니다



MN-60PZ12 : 디지털 HD 방송을 실현하는 고선명 화질, 현장의 감동을 그대로 전하는 60인치 대화면, 공간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두께 9.9cm

당신은 그 차이를 압니다

XCANVAS

문의처:080-023-7777

Digital Q&A

디지털 방송, 무엇이 달라지나요?

디지털은 마술사입니다. 화질과 음질이 놀랍도록 달라집니다. SD(Standard Definition)급은 아날로그보다 2-3배, HD(High Definition)급은 아날로그보다 5배정도의 고화질을 즐길 수 있습니다. 운동 선수의 땀방울까지 보이는 고화질 TV 덕분에 스포츠의 실감이 배가됩니다. 음질은 5.1채널로 기존 2채널의 아날로그와는 비교할 수 없이 생생합니다. 6개의 스피커가 앞, 뒤, 중앙에 자리 잡고 서브우퍼가 저음을 맡습니다. 축구경기 하나를 볼라치면 그 생생한 관중의 함성으로 방안이 금세 경기장이 됩니다.

화질과 음질 외에 무엇이 좋은가요?

디지털은 척척박사입니다. TV를 통하여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집니다. 보기만 하던 TV가 아니라 대화하는 친구가 됩니다. 축구경기를 보면서 '저 선수가 누구였더라' 하는 궁금증은 더 이상 없습니다. 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선수의 약력을 리모컨 버튼 하나로 찾습니다. 선수들의 포지션, 특기사항, 신체조건 등을 완벽하게 볼 수 있어 경기관람이 더욱 즐거워 집니다.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 선수가 입은 운동복이 마음에 든다면 앉은 자리에서 바로 구매가 되는 놀라운 세상입니다.

디지털 방송의 유형 및 수신방법이 궁금합니다

디지털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디지털TV와 셋톱박스만 있으면 그 생생한 화질과 음질이 당신 것이 됩니다. 디지털 방송은 방송국 송신탑을 이용하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과 위성을 통한 디지털 위성 방송 및 디지털 케이블 방송으로 나뉩니다. 디지털 지상파 방송은 일체형 디지털TV의 경우 UHF안테나를 연결하면 보실 수 있고, 분리형 디지털TV의 경우는 셋톱박스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디지털 위성 방송을 보려면 디지털 위성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위성용 안테나를 연결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